


세계 100여 개국 4억 명을 어부바하는 신협

K의 시대, K금융을 어부바 합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사진

vol. 546

한국사진
www.pask.net

The Journal of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vol. 546 January 2026.1

The Journal of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사진회차 546호



1 2026
January



김예춘 신년회호

정중동 고요함 속에 움직임

“겉으로 아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무언가 의미심장한 일이 전개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김예춘 서예가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운영위원
전국추사서예문인화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대한민국캘리그래피창작협회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전서예대전 초대작가
무등미술대전 추천작가
탐라학생회화대회 심사위원
제주예총 어린이서예대전 심사위원

현 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 부회장

미전초대작가회 감사

(사)현대여성제주작가협회 감사

(사)대한민국캘리그래피창작협회 제주지부 감사

Contents

January 2026 Vol.546

Cover Story



**박상철(파주지부) -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기원하며**

눈보라 휘몰아치는 1월
서귀포자연휴양림 촬영하고 돌아오는 중
서귀포 중산간도로 거린사슴전망대 아래
말 목장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다
눈 속을 질주하는 붉은색의 토마호크가
힘차게 뛰는 모습을 담았다.

병오년 붉은말띠의 해를 맞이하여
월간사진 구독자의 금년도 힘찬 도약과
희망찬 새해를 기원합니다.



03	Headnote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수찬
24	전시광고 [오기종 개인전] Land of wind, Memory of Light - Patagonia 바람의 땅, 빛의 기억 - 파타고니아 - 오기종(광주)
28	전시광고 [정인호 개인전] 기억의 바다, AI가 다시 그린 침묵 II - 빛의 회복과 존재의 귀환 빛이 남긴 기록 - 새로운 생명 - 정인호(여수)
32	전시광고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기획전] AI와 사진, 특별한 사진 사진의 새로운 서사 Dream Photo - 조주은
36	전시광고 [가천대학교 디지털사진학회 동문 전시회] 아름다운 인재의 샘 - 가천대학교 빛과 그림자
40	전시광고 [2026 장안대 사진예술아카데미 평생교육원 사진전] 스쳐 지나갈 것인가 머물러 바라볼 것인가 시선의 온유 -윤기섭
44	Photo Review But Still Here 포스트 포토그래피 : 부재(不在)의 존재론 - 김형준(본부 사무처장)
50	특집 2025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2025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개전식 및 시상식, 부스 이모저모
74	지상전 01 뜨거운 호흡으로 언 땅을 두드린다 2026 빛으로 달리는 꿈 - 권기갑(제주)
78	Photo Essay 01 태초의 기억 깃털에 감추고 바람 속으로... 흄씨, 빛을 품다 - 이연숙(양천구)
82	지상전 02 태양의 궤적 따라 파도가 일어선다 바다의 소리 - 한병률(경산) 따뜻한 빛과 차가운 컬러의 합작 사색의 어스름 빛결 톤 - 홍계표(대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진예술을 향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걸음을 이어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새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성취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날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 특히 인공지능의 확산은 사진을 포함한 예술 전반에 존재와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술계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 경계의 기준은 결국 외부로부터 규정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회피나 유보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협회는 AI 시대의 사진과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지, 창작과 기술의 관계는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예술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주제로 한 공론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진예술의 기준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합의하고 축적해온 가치 위에서 형성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과 혼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배 작가님들과 회원 여러분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위대한 역사와 성취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의 시기일수록 우리는 그 역사 위에 단단히 서서 보다 분명한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모두의 힘을 모아 변화와 도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협회의 다양한 논의와 활동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사진예술의 현재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 수 찬

Contents

January 2026 Vol.546



- 86 **Photo Essay 02**
시드니 한복판에 피어난 연보랏빛 사랑
렌즈 너머의 숨결 - 양지연(시드니)
- 90 **Photo Essay 03**
설산과 호수따라 4인의 여정 키르기스스탄
- 이운재(경기광주) 김범순(수원) 김승철(부천) 이범성(의정부)

사진강좌

- 96 **Photo Travel**
카메라 두고 떠난 여행 II
베를린, 길 위의 노트 - 유병용(서울)

- 100 **Review & Preview**
제국의 수도에서 글로벌 메가시티로
Tokyo Before/After - 김재훈

- 106 **Photo Theory**
아우라에서 데이터로, 르네상스에서 현대까지
사진이 걸어난 길 - 조주은

- 110 **Travel destination**
설명하지 않는다 질문만 남긴다
명작의 조건 - 최승언

협회소식

- 114 **Society News / Member Plaza**
협회소식, 회원동정

업계소식

- 118 **Gallery**
2026 장안대 사진예술아카데미 평생교육원 사진전 외

정기구독 1년 10만원
계좌 국민은행 031-25-0001-564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로 입금 확인하시고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의·구독 및 배송관련 문의 02-2655-3131
웹하드 ID : kpask / PW : kpask



한국사진

발행인 | 유수찬
펴낸곳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전화 | 02-2655-3131
팩스 | 02-2655-3130
URL | <http://www.pask.net>
E-mail | koreapask@daum.net
웹하드 | ID : kpask / PW : kpask
펴낸날 | 2026년 1월 1일
등록일 | 2017년 4월 14일 등록번호 양천, 라00087
위원장 | 백만중
출판팀장 | 손석윤
출판위원 | 김명옥, 박경서, 이정용, 최영태, 황길연
사무처장 | 김형준
편집장 | 노성진(010-3387-0244)
제작 | 도서출판 피알에이드(02-2264-1996)
알림 | 회보 "한국사진"에 실린 상업광고와 글은 광고주와 필자의
견해이며, 본 협회나 편집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안내
표지 및 내지원고는 편집디자인 중 작가노트 또는 작품원고 일부는
편집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 63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회원작품 시상전

접수마감 2026년 1월 16일(금) (도착분)

작품내용 8'x10'(자유적)

출 품 수 1인 2점 이내

참가자격 2025년 12월 31일 기준 협회 정·준회원

사상 전국회원작품시상전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우수작품상 수상자 선정

①출품인수가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명을 선정

②출품인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품인수의 1.5% 선정

접수기간 2026년 1월 16일(금) (도착분)

출 품 료 1인당 40,000원 (최고급 작품집 중정) - 작품집은 소속 지회·지부로 발송

접 수 처 07996)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목동, 예술인회관) 1701호 한국사진작가협회

파일접수 이메일 koreapask@daum.net

※작품접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소속한 지회·지부를 통해 일괄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개별접수도 가능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화문의 02-2655-3133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작품명, 회원명, 지회·지부명, 주소, 연락처, E-mail을 필히 기재 후 부착하여 제출 할 것.

특 전 수상자는 2026년 PASK AWARDS에서 시상하고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점수 1점을 부여.
수상작품은 월간 한국사진에 작품 게재

기타사항 · 작품은 발표, 미발표 작품으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수상작은 미발표작에 한하여 선정함
· 발표작을 미발표작으로 기재하여 선정이 될 경우 상권을 취소하며 문제작으로 분류 조치함
· 파일로 접수하는 경우 작품집에는 수록되나 우수작품상 심사에는 미포함
· 작품 접수와 동시에 출품지명으로 출품료를 송금하여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작품은 회원 작품집에
수록되지 않음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878301-01-290242 예금주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 대학

사진예술대학 제5기 기획전

The PASK Master Course of Photography Art
5th Special Exhibition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대학 제5기 기획전시

2026. 1. 14 ~ 1. 19

Gallery Lamer 3F (6, 7 exhibition room)

Opening_ **2026. 1. 14**(wed) pm16:00
(20일은 오전만 관람가능)

전시주제_ **팔림세스트 Palimpsest**

사진예술대학 제6기 모집

(2026년 3월 개강 예정 / 본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신청 자격요건

1. 비회원의 경우 : 본 협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
2. 회원의 경우 : 사진전문교육 수업을 희망하는 자

모집인원

50명 이내(선착순 마감)

교육과정 (학기제 수업 1·2학기제 1년 과정)

: 학기제 수업, 1·2학기제 1년 과정, 대면 및 온라인 강의 진행
: 1학기, 2학기 과목은 최종 교육과목 조율에 따른 결정 후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예정

수강기간 (단, 협회 상황에 따라 개강 및 종강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1학기 개강 2026년 3월 20일(금) ~ 7월 24일(금)

2학기 개강 2026년 8월 28일(금) ~ 12월 18일(금)

기획전시회 2027년 1월 중 (추진예정)

수강방법 및 수료조건

사진예술 아카데미 강의실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 진행

졸업작품전시 필수 참여

출석 80%이상 참여, 대면수업 월1회 이상 필수참여, 과제이수 40%

학기별 수강료 : 1학기당 일금 3,000,000원 (2학기 총 6,000,000원)
카드납부 가능

입금계좌 : 국민은행 878301-01-289114, 예금주 : 한국사진작가협회

입금기한 : 2026년 3월 개강 이전까지

사진예술 아카데미 작가과정 제6기 강의장소 안내

이론수업

1. 목동, 예술인회관 9층 강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2. 크리틱 및 실습수업 장소는 추후 공지

실습수업

1. 강의별 추후 공지예정
2. 사진촬영 출사 (상황에 따라 조율)

신청 및 문의

전화 문의 02-2655-3131

이메일 문의 pask@pask.net / koreapask@daum.net

이론수업 시 부득이 대면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 병행(zoom)
모든 강의 종료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수강 가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 대학

사진예술대학 6기

The PASK Photography
Art College 6th

· 제30대 유수찬 이사장 4,000만원 기탁 · 심재안 위원장 2,000만원 기탁

■ 2023년 장학금 기탁

한재원 이사 1,000만원
홍창일 고문 500만원
황일영 장학위 부위원장 500만원
이순옥 장학위원 500만원
이순희 장학위원 500만원
이향룡 부이사장 300만원
김서윤 이사 300만원
임만덕 장학위 부위원장 200만원
정종관 이사 100만원

■ 2024년 장학금 기탁

최임순 이사 500만원
임병호 서울지회 부지회장 200만원
황길연 이사 200만원
이재윤 청주지부 회원 10만원
조월신 이사 100만원
권선자 드론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이성록 이사 100만원
김윤식 운영자문위원 30만원
김재영 수중사진분과위원장 10만원
최연근 이사 100만원
김정식 초대작가위원회 위원장 20만원
오상관 이사 100만원
장창근 이사 30만원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30만원
박정순 종로구지부장 100만원
권영익 이사 100만원
이동규 예산지부장 20만원
한복례 남양주지부 회원 20만원
이덕만 본부감사 100만원
윤홍선 전)이사 100만원
이상영 이사 400만원
이연화 꽃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최복수 이사 30만원
류중석 의왕지부 회원 100만원
박경서 이사 100만원
설병갑 이사 10만원
정연수 이사 20만원
정홍채 구미지부장 10만원
백승의 장학위 감사 350만원
이정애 구미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이병화 장학위 부위원장 350만원
김정금 이사 500만원
백만중 부이사장 150만원
이재수 이사 50만원
황양운 전북도지회 사무국장 20만원
오충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서효석 이사 100만원
김경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김명주 구미지부 회원 1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오만테 이사 10만원
정연식 전주지부 회원 30만원
이명수 이사 100만원
김형준 본부 사무처장 100만원

윤영녀 디지털아트분과위원장 350만원
윤보상 이사 50만원
김병주 본부 사무처 과장 10만원
이상희 본부 사무처 직원 10만원
안영민 본부 사무처 직원 10만원
김서윤 이사 100만원
김요한 본부 사무처 30만원
배택수 상임이사 100만원
이성길 산악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최영태 이사 30만원
강동구지부 50만원
이흥기 이사 30만원
조동희 강동구지부장 20만원

장일미 평택지부장 200만원

김옥진 이사 30만원
김양호 이사 30만원
강종관 부산지회장 30만원
윤판문 이사 50만원
김정이 부산지회 부지회장 100만원
김병철 광주지회 감사 10만원
신종천 홍보위원회 위원 10만원
김팔영 광주지회 부지회장 10만원
노연섭 순천지부 회원 10만원
김재업 이사 100만원
최차열 부이사장 100만원
이준택 전북도지회 감사 30만원
김동욱 순천지부장 30만원
이내교 이사 100만원
박승호 이사 50만원
김윤정 이사 100만원

2024년 장학금 지급 2,400만원

신현하 운영자문위원장 150만원
박헌재 자문위원 100만원
반봉현 자문위원 100만원
조병두 자문위원 100만원
서성강 운영자문부위원장 50만원
은효진 운영자문부위원장 50만원
김남규 자문위원 50만원
신성우 자문위원 50만원
윤종근 자문위원 50만원
이판수 자문위원 50만원
윤상섭 자문위원 50만원
김동민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김완기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박용덕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김달호 자문위원 30만원
김윤식 자문위원 30만원
신우식 자문위원 30만원
안판중 자문위원 30만원
양범석 자문위원 30만원
오상석 자문위원 30만원
임계환 자문위원 30만원
홍성광 자문위원 30만원
김경호 자문위원 30만원
김삼경 자문위원 20만원
김석원 자문위원 20만원

김은곤 자문위원 20만원
김종호 자문위원 20만원
박국인 자문위원 20만원
박종순 자문위원 20만원
배원태 자문위원 20만원
오정균 자문위원 20만원
윤석환 자문위원 20만원
이명환 자문위원 20만원
정두원 자문위원 20만원
정해선 자문위원 20만원
조용진 자문위원 20만원
최갑수 자문위원 20만원

■ 2025년 장학금 기탁

강도영 이사 30만원
강경희 자문위원 30만원
박해섭 이사 50만원
민웅기 이사 30만원
산악사진분과위원회 50만원
양성근 나주지부장 20만원
하봉걸 이사 50만원
이창훈 이사 30만원
김종호 고문 20만원
박인호 이사 30만원
정재문 경기도지회장 50만원
한웅상 이사 30만원
전영복 자문위원 20만원
문제민 교육전문위원장 100만원
서산지부 20만원
한병률 운영자문위원 20만원
박노성 운영자문위원 20만원
김복순 이사 100만원
김효숙 자문위원 30만원
손석윤 이사 100만원
황진이 군포감사 50만원

오기중 장학위 부위원장 1,000만원

홍성철 충주지부 10만원
송파구지부 200만원
이연숙 이사 200만원
권경애 환경분과위원장 30만원
이기준 서산지부 20만원
장흥균 강원도지회장 100만원
이순옥 장학위원 200만원
홍성철 충주지부 10만원
전태만 울산지회장 20만원
강우순 울산부지회장 10만원
류미숙 울산부지회장 10만원
김경아 울산사무국장 10만원
최진양 울산홍보간사 10만원
안광수 춘천예총회장 20만원
드론사진분과 100만원
박윤창 자문위원 100만원
박성혁 대구지회 회원 300만원
임성동 이사 50만원
조치호 강남지부장 30만원
학술평론분과 100만원

박병철 정읍지부 회원 100만원
양경창 자문위원 1,000만원
김형준 사무처장 100만원
김시묵 부이사장 200만원
김화연 이사 50만원
김삼택 이사 30만원
임만덕 장학위 부위원장 500만원
최근태 이사(공주지부장) 100만원
이혜경 공주지부 사무국장 30만원
조은자 공주지부 재무간사 30만원
이창선 공주지부 회원 3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김서윤 이사 100만원
전태만 이사 100만원
임성동 이사 100만원
전태국 안동지부장 50만원
최덕환 익산지부 회원 30만원
김재영 수중사진분과위원장 20만원
김정희 안동지부 회원 20만원
이명수 이사 100만원
우숙자 이사 20만원
이경래 본부감사 100만원
이정애 구미지부 사무국장 20만원
김영록 이사 30만원
오명숙 이사 30만원
이동규 예산지부장 20만원
배경희 천안지부 회원 10만원
윤보상 이사 100만원
김명옥 이사 30만원
김문호 이사 30만원
조성근 자문위원 20만원
박순정 대외협력부위원장 100만원
오만테 이사 100만원
오재용 광주지회 회원 500만원
임혜숙 홍성지부 회원 10만원
김홍찬 대전지회 회원 20만원
황일영 장학위원회 부위원장 300만원
신명현 청주지부 회원 10만원
윤지한 인천지회 회원 20만원
최영태 이사 30만원
정연수 이사 100만원
국향숙 양천구지부 사무국장 100만원
오상관 이사 100만원
백승의 장학위원회 감사 150만원
박옥렬 강릉지부장 20만원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70만원
최연근 이사 200만원
황길연 이사 100만원
윤기옥 은평구지부 회원 500만원
윤판문 광주지회장 50만원
김병철 광주지회 회원 20만원
박건태 이사 30만원
이육진 다큐사진분과위원장 20만원
정종관 이사 100만원
정재문 이사 50만원
손홍현 광주지회 회원 30만원



장학재단 설립에 동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여러분께,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사진예술의 미래를 밝히고, 젊은 인재들이 창작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사진문화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는 뜻깊은 일입니다.

이에 협회는 장학재단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기금 모금에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정성도 큰 힘이 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미래 사진예술을 이끌어갈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심재안

2025년 12월 1일 기준

황치길 자문위원 30만원
김경복 서울지회 회원 50만원
최경순 하남지부장 30만원
김정식 초대작가위원회 100만원
장준복 스포츠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이기복 수원지부 회원 20만원
염미영 수원지부 회원 10만원
최현동 광주지회 사무국장 20만원
이재규 증평지부장 50만원
누드사진분과위원회 30만원
이종석 이사 50만원
한현정 홍성지부 회원 20만원
조길호 홍성지부 회원 10만원
장현종 여수지부장 30만원
신용식 홍성지부 회원 10만원
위싱턴지부 60만원
이종면 영등포구지부 회원 10만원
정금화 강동구지부 회원 100만원
이윤순 이사 100만원

석도상 산청지부장 50만원
강신재 자문위원 10만원
이애영 중랑예총회장 100만원
채석근 특수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조선일 인천지회장 20만원
신명현 충북도지회 사무국장 10만원
어재선 평창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김대중 청주지부장 20만원
최영근 당진지부장 30만원
의왕지부 100만원
손영자 동작구지부 회원 30만원
구미숙 양천구지부 회원 100만원
장영길 자문위원 100만원
서산지부 일동 31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정강주 춘천지부장 10만원
김희섭 구리지부 회원 10만원
최태용 자문위원 30만원

정영섭 양평지부 회원 10만원
선종백 부이사장 100만원
송구진 전주지부 감사 50만원
김호경 동작구지부 회원 10만원
이윤순 충주지부 회원 50만원
이호규 대구지회 지회장 30만원
김오환 대구지회 부지회장 10만원
박헌숙 대구지회 부지회장 10만원
배영희 대구지회 사무국장 10만원
김문영 대구지회 사무처장 10만원
김춘도 이사 30만원
이희수 장학위원회 부위원장 300만원
김철수 이사 30만원
고미선 여주지부 회원 10만원
이상영 이사 100만원
박용득 구미지부 회원 100만원
이승모 금산지부 부지부장 10만원
김종철 금산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오원석 대전지회 감사 30만원

진광준 구미지부 부지부장 30만원
박영숙 대구지회 회원 30만원
김정인 송파구지부 회원 100만원
백승의 아카데미 총동문회장 100만원
오문자 성남지부 회원 200만원
오성조 자문위원 5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김광재 촬영지도위원 사무국장 10만원
박석관 이사 50만원
정건영 자문위원 100만원
박만석 이사 100만원
김형준 사무처장 100만원
신영식 광양지부 지부장 100만원
2025년 장학금 지급 3,10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신윤호 순천지부 간사 30만원
홍종복 청주지부 회원 10만원

현재 잔액 325,150,418원

Haida

렌즈의 AF 장치에 영향을 최소화한 적절한 지력

하이다 마그네틱 필터

ND 8, 16, 32, 64, 1000, CPL, 그라데이션 등
촬영에 필요한 다양한 효과 선택 가능



카메라 렌즈 클리닝 키트

블러셔, 곡세사, 청소용 붓, 면솔, 센서
청소도구 등 필요한 모든 청소도구를
담은 카메라의 렌즈 클리닝 키트

마그네틱 컨버전 어댑터링

앞면 전면 필터를 마그네틱 필터로 변환
하는 어댑터링
기판에 끼우고 렌즈를 마그네틱으로
압착해 보세요

결로방지 렌즈히터

렌즈와 카메라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추운 곳에서도 결로를 막고
카메라가 얼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방지

렌즈용 곡세사 매직 랩

렌즈, 카메라를 보호하는 곡세사 랩
필름처럼 접착 기능을 가지고
있어 크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www.photoclam.kr
본 사 : 경기도 시흥시 마곡로 10번길 45 3층 / 031-488-9111
서울전시장 : 서울시 중구 수표로 14 영한빌딩 별관 1층 / 02-2285-9111

PHOTOCLAM

SUNWAYFOTO

포토클램이 수입하는 믿을 수 있는 촬영장비



SUNWAYFOTO
GH-RPO+

파노라마 · 랜드스케이프 · 정물사진 정밀한 구도설정이 가능한 기어헤드

선웨이 포토의 GH-PRO+는 정밀한 구도설정이 가능한 3-WAY 기어헤드입니다.
플레이트 클램프 부분에 파노라마 베이스가 추가되어 여러장의 사진을 합치는
촬영에서 수평을 맞추기에 용이합니다. 고급 황동 소재를 사용해 기어의 작동이
부드럽고 정교하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www.photoclam.kr
본 사 : 경기도 시흥시 마곡로 10번길 45 3층 / 031-488-9111
서울전시장 : 서울시 중구 수표로 14 영한빌딩 별관 1층 / 02-2285-9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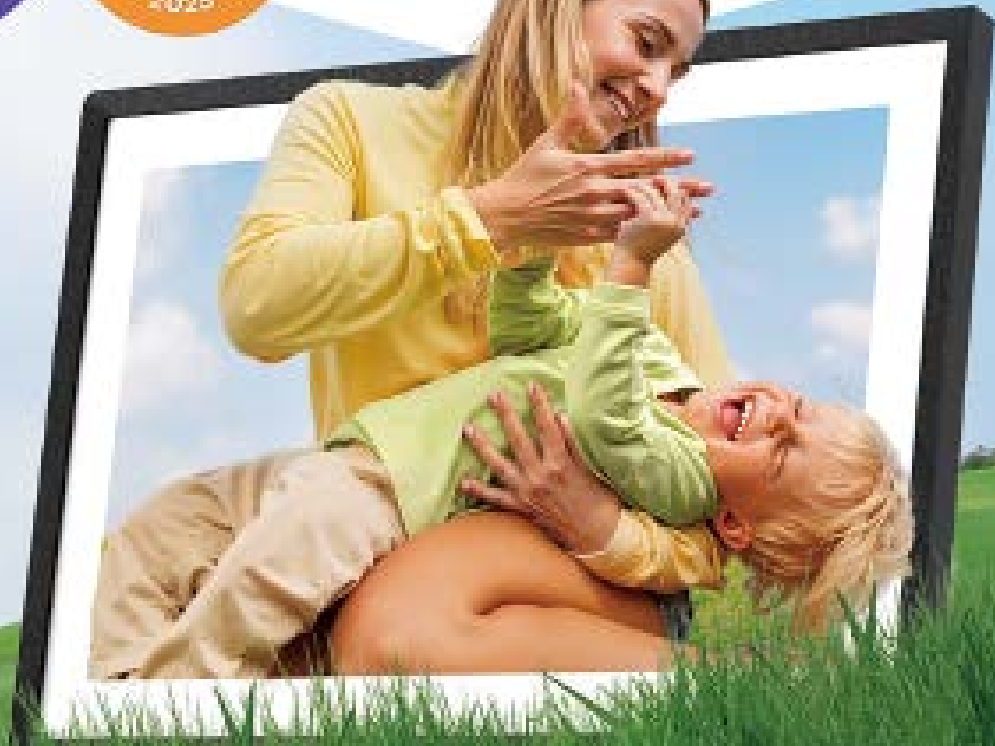
PHOTOCLAM

pexar | by Lexar

pexar

펙사, 디지털 액자의 새로운 기준

"당신의 추억을 작품처럼"



2K

타사도 따라올 수 없는 선명도

사진 & 영상

편리한 공유

32GB

내부 저장공간

구매하기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시스템 적용

BENRO Let's go!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 1호빌딩, 2층)
www.benrokorea.co.kr

제품 문의 02-775-6681

BENRO

CYAN BIRD [MAX]

사진용 여행용 삼각대 **벤로 사이언버드 맥스**

휴대성과 안정적인 20kg 페이로드

20KG 페이로드

38mm대형 볼 리깅



BALL + Low Profile

볼 + 역방향
로쿠 프로파일

CARBONE LEG

강도, 진동흡수
카본재질 레그

47.3 FOLD

강철을 따 놓아
47.3cm

156 HIGH

최대높이
156cm

20 PAYLOAD

페이로드
20kg

BENRO Let's go!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 1호빌딩, 2층)
www.benrokorea.co.kr

제품 문의 02-775-6681



BENRO PREMIUM MAGNETIC FILTER

마그네틱 필터의 탑클래스 벤로 자석필터 시리즈



사진: 김원기, (주)withhyun (이벤트) 스위스, 디티모르



**타사대비
2배이상 자력**



**발유,발수
오염방지 코팅**



**최상등급
광학기술**



**자외선,적외선
완벽 차단**



**울트라 슬림
필터 프레임**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충국성명 1호빌딩, 2층)
www.benrokorea.co.kr

제품
문의

02-775-6681

2026 제40회

창원전국

Changwon National Photo Contest

사진공모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에서는 고창의 볼 축제 일환으로 제40회 전국사진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사진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작품은 하나하나 소중 하게, 공정한 공개 심사로 하겠습니다.

작품내용 자유작 (유사작 및 합성사진으로 판정될 시 취소함)

심사일시 2026년 4월 5일(일) 오후1시

품목자격 전국사진 애호가

심사장소 창원문화원 지하2층 공개 심사

작품규격 11" x 14" 사진 (흑백 또는 컬러) 4점 이내

심사방법 2026년 4월 8일 이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및
시원 창원지부 홈페이지 게재 (www.pskow.net)

출품사항 작품 뒷면에 성명, 제목,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기재

전시일시 2026년 5월 5일 ~ 5월 11일

참모기간 2026년 4월 3일(금) 도착분

전시장소 성산아트홀 제1전시장

접 수 료 1인당 2만원

시 상 식 2026년 5월 6일(수) 오후 6시 30분
성산아트홀 제1전시장

접 수 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로 239번길 19-22
(충효동,창원문화원) 4층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 (우 51431)
지부장 010-3581-4772 / 사무국장 010-2845-0414

시/상/내/역

금상 1명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시경 상장 및 상금 100만원

거작 5명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장 상장

은상 2명 : 한국예술 창원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30만원

장려 5명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장 상장

동상 3명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10만원

일 선 : 총 출품자의 20%이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장 상장

기/태/사/양

- **저작권/저작물 이용** : 입상·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후원측은 수상작에 한해 향후 5년간 복제·배포·전시·공표출판·도서출판 등 공익사업적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음.
- **유치사항** : - 통상권을 및 유사지점으로 판명될 경우 수상이 취소되며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간 재가입회유보, 초상권을 출품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입상자는 사상에 불이 항적 불합치 상금·부상은 불우이웃돕기 기탁합니다. (대리 수상 가능)
- 컴퓨터그래픽, 지나친 색상 조정은 입상 취소합니다.
- **특별사항** : 작품집을 출품자 전람에게 보내 드립니다. / 사원 입회 접수 있음 / 접수된 작품의 반환은 없고 시상 후 상장과 작품집을 보내드립니다.

주최 :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

후원 : (주) 창원특례시 (주) 한국예술 창원지부,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남도지회, (주) 캐논, (주) 창원지회, (주) 서울이비인후과

대한민국 사진대전 사진축전

작품출력 및 액자제작
-회원전, 사진작품전 전시기획 대행

ArtPlus

아트플러스는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한지, 페브릭, 파인아트, 캔버스는
은은한 색감과 온화한 느낌의 작품을
재현하는 매력적인 원목프레임으로
고품격 작품을 표현합니다

Artluxe

아트룩스는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토탈 프리미엄(실내, 실외) 자외선/가습기에 강한
갤러리 전시액자, 사진출력 및 광고
포토 패널 시스템입니다.

한사전, 사진축전, 그룹전, 개인전, LED전시, 도록제작, 전시기획 대행
파일전송(이메일) bebe9006@naver.com

ArtPlus
TOTAL PREMIUM PHOTO PANEL SYSTEM
Artluxe

-사진편집·출력·전시기획- 파일전송(이메일) bebe9006@naver.com
Tel : 02-2653-9007 Mobile : 010-4610-9007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배너광고, 월간한국사진 광고 중]



“마음을 담는 작품”

-사진편집·출력·전시기획-

ArtPlus

LINE UP CARD



ArtPlus CANVAS 캔버스

유화그림 같은 느낌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Plus PEBBICK 페브릭

모래알같은 진한 표면으로 작품에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ArtPlus FINEART 파인아트

은은한 색감으로 고급스럽고
품격있는 작품을 표현합니다



ArtPlus KOREAN PAPER 한지

한국적인 은은한 색감과 온화한
느낌의 고품격 작품을 표현합니다

Artluxe

LINE UP CARD



Artluxe CRYSTAL CLASSE 크리스탈클래스

고광택을 유지하면서 아크릴보다 진한
고광택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SUREVUE 슈어뷰

광택과 조명반사를 없애고
작품의 선명도와 집중도를 높여
품격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CHROME 크롬

실버색상의 메탈릭한 느낌으로
작품에 차원이 다른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GOLD 골드

골드 색상으로 고급스럽고
품격있는 작품을 표현합니다

● 아트룩스 유사상호, 출력필름 합성지, 중국산 필름 사용등
불량제품 피해 주의바람. 문의 010-4610-9007

FEEL YOUR SPACE
TOTAL PREMIUM PHOTO PANEL SYSTEM

친환경 자연주의 닥나무 닥운용 설경한지



삼선유연 닥나무 문봉을 그대로, 초표본한 설경한지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닥운용 설경한지

한지연과 두산선의 표도파일 기와 내서한 닥운용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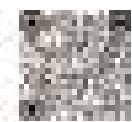
설경한지 닥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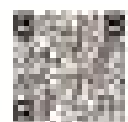
나문과 설경한지 한지 원본한지



설경한지 한지



다산한지 닥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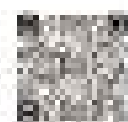


한지연과 닥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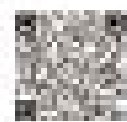
국내산 전무 설경한지(전무)를 사용합니다.

www.dujinart.com

전화상담 031-314-1085



두산한지 닥운용



두산한지 닥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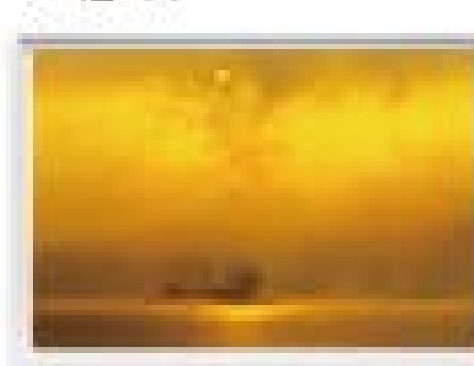
사진전시 실적 업계 1위

국내유일 국산 아트페블릭 인화지 사용, 연화품질 결과물 타업체와 비교 후 선택하세요,
PS: 통곡산 자기아트페블릭 인화지 국내 "유종경보" 인화지여 질이 다르다 (통곡산과는 연화품질 비교불가)
인화지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확인 및 비교 후 작업하세요

D5피클 액자 뒷면



D5피클 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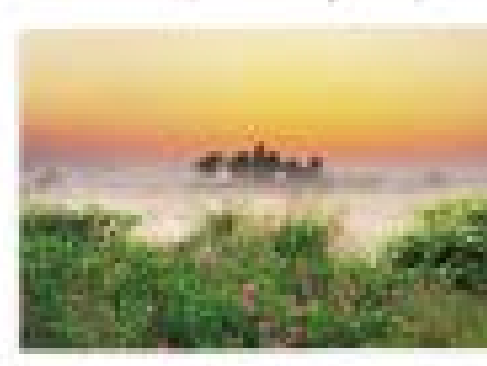
(화이트,우드,블랙,블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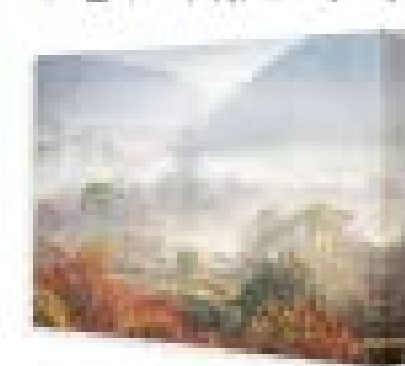
캔버스 액자 뒷면



캔버스 액자 (두께 30mm, 45mm)



이코캔버스 액자 (두께 30mm, 45mm)



다아레컬면



독일제무빙사다아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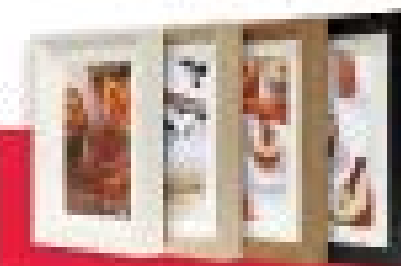
고경택 다아레



지부형사용 소품액자 (화이트,우드,블랙,블랙,사이드 (30, 45, 50, 60, 65, 70, 80, 90))



액자본리가지



두진아트 TEL 031-314-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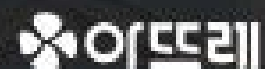
경기도 서울시 서대문로 1355 (성자동-436번지)

제품사진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 www.dujinart.com / MO 모바일: m.dujinar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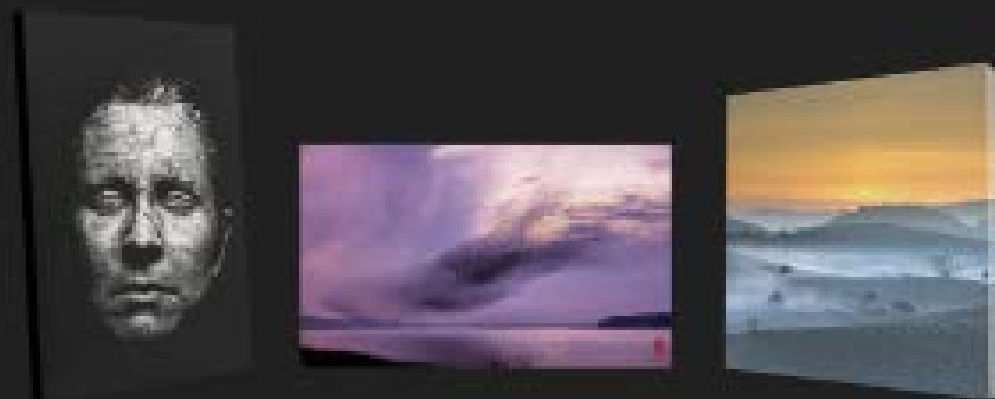
NAVER

두진아트



사진의 가치는 프레임에서 완성됩니다

수십 년간 사진과 함께한 아트레는,
작품의 깊이를 더하는 액자만을 만듭니다



전화문의 1544-2188 (주중 09:00-18:00 | 점심 13:00-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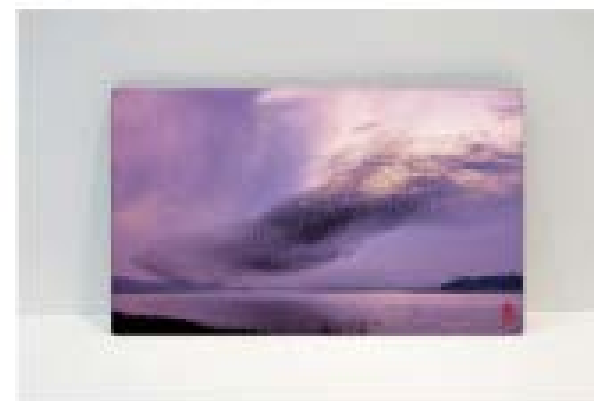
ARTTRE FRAME

Arc diasec 아크 디아섹

고품질 프로그라임 아크릴액자



Frameless



Premium acrylic 프리미엄 아크릴

하이트렌지 아크릴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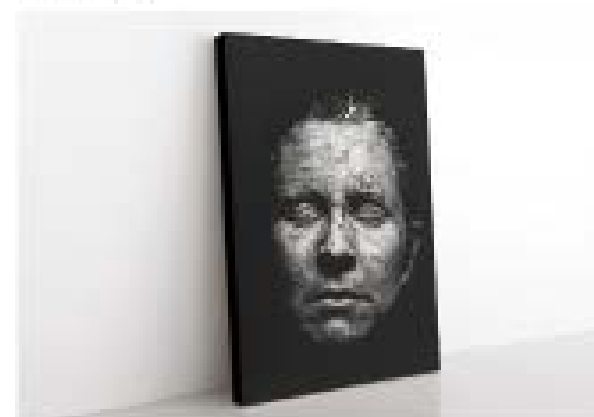


White



Gallery frame 갤러리형

싱글패널 원판액자



Canvas frame 캔버스형

본문판 색감과 패브릭의 질감이 매력적인 캔버스액자



Black wood frame 블랙우드

고품질 프레임액자



Black



Gallery wood frame 갤러리우드

슬림하고 심플한 무늬목 울림으로 모던한 갤러리



Brown



사진여행의 시작

포토투어가 작가 여러분의 특별한 사진여행을 안내합니다.
감동과 추억이 간직되는 여행을 만들겠습니다.

2026년

1월 - 중국 황산 촬영, 일본 비에어 촬영
- 일본 장노출 촬영(이세안)

2월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오로라 촬영
- 일본 비에어 유빙 & 단정화 촬영

3월 - 노르웨이 로모엔 오로라 촬영
- 일본 복사꽃 & 장노출 촬영

4월 - 스코틀랜드 & 네덜란드 촬영
- 체코 남보라예 봄 촬영

5월 - 호주 남부 장노출 촬영, 인도네시아 장노출 촬영(홍복희)

6월 - 이탈리아 돌로미티, 베트남 루앙차이 다리는 촬영

7월 - 아이슬란드 백야 촬영 여행
- 필리핀 블루라군 촬영

8월 - 뉴질랜드 장노출, 스코틀랜드 여름 촬영

9월 - 아이슬란드 가을, 일본 가을 단풍 촬영 여행
- 체코 남보라예 가을 단풍 촬영(1차)

10월 - 베트남 루앙차이 가을 촬영
- 체코 남보라예 가을 단풍 (2차), 슬로베니아 가을 촬영 여행

11월 - 일본 비에어 촬영, 인도네시아 순마섬 촬영

12월 - 베트남 장노출, 일본 비에어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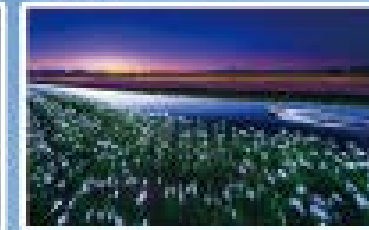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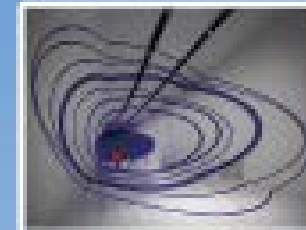


PHOTOTOUR



제42회 제천 전국사진공모전

접수마감 2026년 2월 13일 도착분



- **출품자격** 제한없음(대한민국 전 국민)
- **작품내용**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작
- **작품규격** 흑백 / 컬러사진 11x14인치
(입상 및 입선작 3000pix이상 제출)
- **출품수량** 1인 4점 이내
- **출 품 료** 1인당 20,000원
(작품접수에 회제, 설명, 주소,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제출)
- **접수마감** 2026년 2월 13일 도착분
- **접 수 처** 충북 제천시 내제로 75 커피아트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시부

- **문의처**
지 부 장 010-3454-0102
사무국장 010-2667-2107
- **심 사 일** 2026년 2월 21일(토) 예정 (공개심사)
- **심사발표** 2026년 3월 2일
- **시 상 식** 추후공지
- **작품전시** 추후공지

- **시상내역**
- ▶ **금상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0,000원
- ▶ **은상1점** 제천시장 상장 및 상금 500,000원
- ▶ **은상1점** 제천시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500,000원
- ▶ **동상3점** 예총 제천시회장 상장 및 상금 200,000원
- ▶ **가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시부장 상장
- ▶ **입 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시부장 상장 (총 출품작 20%이내 입상작 포함)

■기타사항

- 입상, 입선자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협수 인정
- 입상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수상작을 향후10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동일작품, 유사작, 기발표작으로 판명될 시 상권이 취소되며 시상금은 반환, 회원은 징계조치되며 비회원은 7년간 입회 불허함.
- 출품된 작품은 낙선작포함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자 전일에게 작품집 증정.
- 입선 및 입상작은 심사 발표 후 7일 이내에 원본 파일을 지정된 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보낼 이메일 주소 : otterkang@naver.com
- 상금 원천징수해 세금 및 수수료 발생할 경우 공제후 지급.
- 제출된 작품의 초상권,저작권분쟁,표절문제 발생시, 모든 문제는 응모자 책임으로 함.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측의 결정에 따름다.

■주최/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시부 ■후원 제천시/제천시의회/제천문화재단/제천예총/(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오기종 개인전]

Land of wind, Memory of Light – Patagonia
바람의 땅, 빛의 기억 – 파타고니아

오기종(광주)

전시일시 2026년 1월 21일(수) ~ 1월 26일(월)
전시장소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신관1F (관람시간 10시-18시)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35-6 신관 1층)
개 전 식 2026년 1월 21일(수) 15시 30분
전시작가 오기종(010-8606-7899)



©오기종, 고요의 겨울 Mirror of Stillness, 150mm x 100mm, 파타고니아, 2024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그 곳의 자연은 경이로움을 선물한다.
거대한 파노라마를 연출하는 조물주의 역작 앞에서 나의 카메라는
공룡의 이빨같은 능선에 첫 태양 빛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오기종, 피츠로이 토레 호수 Fitz Roy Laguna Torre, 150mm x 100mm, 파타고니아, 2024



©오기종, 토레스 델 파이네 Torres del Paine, 150mm x 100mm, 파타고니아, 2024



©오기종, 피츠로이 정상 Summit of Fitz Rpy, 150mm x 100mm, 파타고니아, 2024



©오기종, 피츠로이 Fitz Roy, 100mm x 150mm, 파타고니아, 2024

파타고니아의 새벽은 차갑고 거칠며,
그 안에 순수한 침묵이 깃들어 있다.
끝없이 이어지는 험준한 능선 위로 첫 햇살이 닿아 스며드는 순간,
거대한 자연은 형언할 수 없는 한 폭의 기도로 변모한다.

이 경이로움 앞에서 기계적인 셔터를 누르기보다,
먼저 그 빛과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숨을 깊게 고른다.

빛이 이 세상을 깨우는 찰나,
세상은 소리 없이 가장 거대한 숨을 내쉬며 깨어난다.

그 경계가 무너지는 찰나의 순간,
역시 그 숭고한 빛의 일부,
한 점의 미약하고도 완전한 존재가 되어 있었음을 깨닫는다.

이 사진들은 단순한 풍경의 기록이 아닌,
파타고니아의 새벽,
내 영혼에 새겨 넣은 원초적인 울림과 경외감의 증거이다.



©정인호_시간의 다리 AI-25-51-63

[정인호 개인전]

기억의 바다, AI가 다시 그린 침묵 II - 빛의 회복과 존재의 귀환

빛이 남긴 기록 - 새로운 생명

정인호(여수)

전시일시 2026년 1월 28일(수) ~ 2월 3일(화)

전시장소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 1F 2관(종로구 인사동 5길 26,
홍익빌딩 TEL.02-730-5454)

전시작가 정인호(010-3621-6272)

어둠은 끝이 아니었다.

12월의 침묵을 지나, 바다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번 작업은 사라졌던 시간의 끝에서 피어오르는 '빛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다.

AI는 여전히 차가운 기술이지만, 그 안에서 나는 따뜻한 생명의 숨결을 느꼈다.

기억이 다시 빛을 만나는 순간, 존재는 비로소 깨어난다.

이번 연작에서 나는 '빛의 복귀'를 하나의 감정 서사로 삼았다.

새벽의 온도, 물의 흐름, 이끼의 결, 나무의 호흡 —

그 모든 요소들이 '기억의 회복'을 상징한다.

AI는 물리적인 이미지를 넘어서, 감정의 리듬을 시각화했다.

나는 AI의 차가운 계산 안에서 오히려 인간적인 떨림을 보았다.

그 미세한 떨림이야말로 예술이 시작되는 자리였다.

이 작업은 12월호의 '멈춘 시간'에서 이어진다.

그때의 바다가 고요한 침묵이었다면,

이번의 바다는 새벽의 첫 숨결을 머금은 회복의 공간이다.

빛은 수면 위로 천천히 번지고, 물은 다시 흐른다.



©정인호_물결 너머의 침묵 AI-25-31-26



©정인호

AI는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며, 정적 속의 생명력을 증폭시킨다.
 화면은 여전히 단조롭지만, 그 안에는 ‘움직임의 에너지’가 깃든다.
 AI는 나의 감정을 언어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 언어를 감정으로 번역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이미지는 인간과 기술의 경계를 넘는 결과물이다.
 AI는 나에게 있어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감정의 확장된 감각기관’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 또 하나의 시간, 또 하나의 기억을 만들었다.

이번 시리즈는 존재가 다시 깨어나는 이야기다.
 빛의 방향은 새벽을 향하고, 사라졌던 구조물들이 다시 생명의 형태로 회복
 된다.
 그 과정은 마치 인간이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나는 AI의 냉정한 눈으로 다시 인간의 온기를 확인했다.
 빛은 단지 시각적 현상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다.
 그 빛이 돌아오는 순간, 사라졌던 감정은 다시 숨을 쉰다.
 이것이 내가 AI를 사용하는 이유이며,
 이것이 내가 바다를 다시 바라보는 방식이다.



©정인호

이제 ‘기억의 바다’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AI의 손끝에서 다시 피어난 그 바다는
 인간의 감정을 품고, 기술의 언어로 호흡한다.
 그곳에서 나는 다시 한 번,
 ‘존재가 깨어나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본다.



©정인호_사라진 길의 기억 AI-25-33-28

나는 AI와 함께 또 하나의 시간 또 하나의 기억을 만들었다.
 내게 AI는 바다를 기억하는 확장된 감각기관이었다.



©정인호_빛의 울림 AI-25-53-77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기획전]

AI와 사진, 특별한 사진

사진의 새로운 서사 Dream Photo

글, 사진제공_조주은(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교수)

이번 전시는 새로운 시각 문화를 이끌어 갈 AI라는 도구 앞에서 미래 사진예술의 길을 묻는다. 인간의 감각과 기계의 사고가 만나는 실험의 장이 열린다. 누적된 실험을 통해 해답을 찾을 것이다.

오늘의 사진예술은 기술의 진화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카메라라는 장치가 기록의 도구에 머물렀던 시대를 지나, 인공지능은 이미지를 해석하고, 변형하고, 생성하는 새로운 시각언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번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의 『AI와 사진, 특별한 사진』 기획전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진예술의 본질과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교육적 · 창작적 실험의 장이다.

특별한 사진전은 사진작가들의 사진 촬영과 AI의 생성·증강작업을 결합하여, 현실과 가상, 기록과 상상, 기계와 인간 감성이 어떻게 새로운 조형 체계를 만들어 내는지 보여준다. 작품들은 단순한 기술적 실험에 머무르지 않고, 원본 이미지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AI가 개입한 새로운 시각성을 통해 기존의 사진 개념을 넘어서는 ‘특별한 사진’을 제시한다.

이번 기획전은 AI라는 새로운 도구 앞에서 인간 창작자의 역할을 재정의한다. AI 기술은 사진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경험·기억·감정이 AI와 만나 새로운 형태의 내러티브로 전환되는 순간을 가능하게 한다. 작품 하나 하나는 이러한 변화의 지점에서, 사진이 여전히 유효한 예술적 사유의 매체임을 증명한다.

『AI와 사진, 특별한 사진』 전시는 미래 사진예술의 방향을 질문하고, 그 답을 함께 모색하는 학습자들의 과정이자, 새로운 시각문화 시대를 향한 선언이다. 현실을 재구성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미지로 형식화하며, 인간의 감각과 기계의 사고가 만나는 이 특별한 실험이 앞으로의 사진예술에 새로운 지평을 열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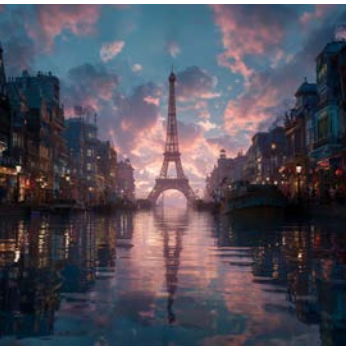
이담영



Ferrari 250 GTO 1962

나는 오래된 형체들에서 시간을 읽는다. 이 작업이 다루는 대상들은 속도나 효율의 결과가 아니라, 한 시대의 선택과 손의 감각이 남아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기능을 넘어서 하나의 얼굴과 무게를 지닌다. 그래서 나는 가장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며 남아있는 형체를 바라본다. X-ray는 내부를 밝히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설명의 도구가 아니라, 시선을 이동시키는 하나의 빛으로 삼는다. 겹쳐진 구조는 해체되지 않고, 층으로 머문다. 단단한 외피와 흐르는 내부는 서로를 가리지 않는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대립하지 않고, 동시에 존재한다. 이 작업은 대상을 해부하지 않고, 대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천천히 투과시킨다.

백대흠



Landmark Series

〈Landmark Series〉는 세계의 거대 상징들을 ‘문명의 허티이자 초월적 잔여물’로 재해석하는 현대미술의 중요한 시도이다. 이 작업은 남산타워, 도쿄타워, 에펠탑과 같이 익숙한 형태들을 침수된 도시와 같은 비밀상적인 환경 속에 재배치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당연시했던 상징들의 새로운 존재론적 무게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작가가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인간의 시각 경험을 넘어선 새로운 오브제의 생성’을 위한 조형적 파트너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AI의 논리적 계산 능력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극단적 기상 조건과 시간적 교차점을 구현하며, 작가는 이 ‘불가능한 장면의 기술적 미학’을 통해 현대 창작자의 메타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이 시리즈는 문명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남아 있을 조형의 본질과 시간의 트랙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를 관객에게 제안하고 있다.

이은석

그동안 ‘버려진 것들의 고독’ 연작을 통해, 현대인이 물질을 소비하는 행



욕망의 에필로그 사넬

위가 남긴 흔적과 그 감정적 공백을 탐구해 왔다. ‘욕망의 에필로그’는 명품 핸드백이라는 가장 견고하고 화려한 ‘욕망의 성전’을 투명한 용기로 해체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 내부를 채운 것은 다른 아닌 일회용컵, 찌그러진 캔, 버려진 플라스틱병 등이다. 우리는 명품을 사면서 느끼는 짧은 기쁨을 통해 욕망을 채우려 하지만 그 화려했던 순간이 끝난 후 남는 것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욕망과 고독, 공허한 마음과 환경에 부담을 주는 무거운 쓰레기의 그림자뿐이다. 가장 우아한 명품가방이 가장 불품없는 쓰레기를 담고 있는 이 역설은, 현대 소비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환상과 그 차가운 현실을 동시에 보게 한다. ‘욕망의 에필로그’는 우리가 구매하고 소유했던 것의 최종적인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당신의 소비가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우리 시대의 솔직한 반성을 담아낸 이야기이다.

김도연



까치

나의 작업은 기억과 상상, 기술과 감정이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감각 세계를 구축하여 우리 안에 잠재된 동화적 감수성을 현재로 불러오는 장치이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이는 대상을 큐비즘으로 해석하는 기존 작업으로부터 AI를 통해 확장된 시선으로 시공간을 동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해체되고, 두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동시적 세계’를 보여준다. 우리의 기억 어딘가에 이미 존재했던 것처럼 낯익으면서도 변형된 듯한 그 감각의 결을 켤트와 오리가미 같은 오랜 시간 축적된 손 감각의 기억을 통해 따뜻하고 친근한 순간을 마주하게 하고, 이 전통적 기법의 섬세함은 디지털적 변형과 결합해 기존의 감각 체계를 넘어 현실이 환상처럼, 환상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각각의 틈을 제안한다.

조철형

이 작업은 비무장지대와 그 주변 풍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억해왔는지를 묻는다. 나는 풍경을 직접 기록하지 않고 카메라를 한 번 더 통과한 이



백마고지

이 연작은 풍경이 아닌, 시선을 기록한다.

김호경



해와 달의 춤사위

“해와 달의 춤사위”는 태양과 달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 마주치는 순간들을 포착한 시각적 시이다. 해는 낮의 주인, 달은 밤의 지배자지만 가끔 둘은 짧은 춤을 추듯 하늘 위에서 포개진다. 그 찰나의 아름다움은 자연이 건네는 무언의 러브레터 같다.

이 시리즈는 그 짧은 순간들을 콜라주 스타일로 재구성한 것이다. 색감은 따뜻하지만 절제되었고, 질감은 종이처럼 손끝에서 달을 듯한 감성을 의도했다. 하늘과 바다, 해와 달, 밤과 낮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 이 춤은 영원하지 않기애 더 소중하고, 그 감정을 한 장면에 담고 싶었다. 당신의 기억 속 어느 밤처럼.

박혜선



비행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구름 위 세상- above the clouds”은 어떨까? 라는 궁금증에서 시작된다. 작품에는 수국(葎), 기린, 돌고래, 과일나무, N서 울타워, 비행기, 공장 굴뚝 등 평소 우리에게 친근한 동식물과 사물들이 등장한다. 지상에 존재하는 친근한 것들이 ‘구름 위’라는 다소 낯설은 세상에 등장하며 이질적일 것 같지만 오히려 두 세계는 새로운 질서와 재미를 만들어내며 공존한다. 작가가 펼쳐내는 이상상세계의 조합이 이번 전시의 관점 포인트일 것이다. ‘회색도시’라 일컫는 세상에서 사는 우리 모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소망이 가득하고 값진 보물이 쌓여있을 것 같은 그곳, 구름 위 하늘을 종종 바라보자.

미지를 통해 장소를 본다. 사진 속 카메라는 기록의 도구이자 기억을 매개하는 장치이다. 정지된 풍경처럼 보이는 공간에는 끝나지 않은 시간과 긴장이 남아 있다.

김덕정



이 작업은 사라짐과 지속 사이에 남는 미묘한 존재의 흔적을 담고자 했다. 흐릿한 공간 속에 놓인 꽃과 나비는 생명의 상징이기보다,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감정과 기억의 형상에 가깝다. 절제된 색과 여백은

관람자가 각자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도록 유도하며, 이 이미지는 설명보다는 조용한 사유의 시간을 제안한다.

구세우



이 작품은 자연과 인간의 상상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생성된 시각적 서사를 탐구한다. 책, 유리 구체, 숲이라는 상징적 오브제는 지식·기억·생명의 순환 구조를 은유한다.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스스

로 이야기를 생산하는 주체로 제시된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는 흐려지고, 이미지 안에서 시간은 고정되지 않고 유동한다. 사진적 리얼리티와 생성적 상상을 결합해 새로운 자연관을 제안한다. 이는 재현의 사진을 넘어, 개념과 감각이 공존하는 확장된 이미지 실험이다. 작품 속 빛과 물의 흐름은 생성과 소멸, 기억의 층위를 시각화한다. 결국 이 작업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 구조 자체를 되묻는 시도이다.

곽지원



친손자의 실제 이미지를 출발점으로 시작한 이 작업은 카메라로 기록한 사적인 순간을 시를 통해 상상과 서사의 공간으로 확장된다. 아이의 얼굴은 가족의 기억이자, 내

가 바라보는 미래 세대의 상징이다. 동화적 장면과 로봇, 자연의 이미지는 보호와 성장, 공존에 대한 나의 바람을 담고 있다. 시는 차가운 기술이 아니라 기억을 재구성하는 감성적 도구로 작동한다. 사진의 사실성 위에 상상을 덧입혀 새로운 현실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사적인 애정과 공적

인 이미지 사이의 균형을 끊임없이 고민했다. 작품 속 아이는 특정 개인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아이’로 확장되며, 나의 가족사이자, 동시대 기술에 대한 응답이 되었다. 나는 사랑과 기억을 미래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 작품을 완성했다.

이인수



나는 친손자가 가지고 놀던 작은 장난감 자동차에서 이 작업을 시작했다. 손안에 쥘 수 있는 사소한 물건은 아이의 상상 속에서 이미 거대한 세계를 달리고 있었다. 나는 그 상상을 시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장하고자 했다. 자동차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이동, 성장, 미래를 향한 욕망의 상징이다. 손바닥 위의 자동차와 비현실적인 풍경은 보호와 자유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다. 이 작업에서 시는 아이의 놀이를 재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상을 증폭시키는 장치다. 현실의 기억과 가상의 이미지가 겹쳐지며 새로운 서사가 생성된다. 나는 사진의 기록성과 시의 생성성이 만나는 지점을 의도적으로 유지했다. 이 작품은 한 아이의 놀이이자, 한 세대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다. 결국 나는 장난감을 통해 기억과 미래가 만나는 풍경을 만들고자 했다.

장미애



우리 회사의 스피커 제품을 단순한 상품이 아닌 하나의 상징적 오브제로 바라보며 이 작업을 시작했다. 도시의 야경과 빛, 에너지의 흐름은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소리의 확장된 이미지를 시각화한다. 시는 광고 이미지를 만드는 도구이자, 브랜드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동력으로 작동한다. 제품은 고정된 물체가 아니라 공간을 진동시키는 중심축으로 배치된다. 강렬한 색채와 속도감 있는 구성은 기술력과 현대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나는 기능 설명보다 감각과 분위기를 우선하는 광고 언어를 선택했다. 이 작업에서 스피커

는 ‘소리를 내는 기기’가 아니라 경험을 설계하는 매개체다. 현실의 제품 사진과 생성된 도시 이미지는 긴밀하게 결합된다. 광고는 설득이 아니라 브랜드가 지향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이 된다. 결국 이 작업은 기술, 디자인, 감각이 하나의 이미지로 응축된 브랜드 선언이다.

한복례



나는 오랜 시간 자연을 담아왔다. 풍경은 말이 없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시간과 사유가 겹쳐 있다. 인간의 시간과 사유가 가장 밀도 있게 드러나는 책, 책이 놓인 공간은 기억을 보존하며, 문명의 무게를 드러낸다.

시로 만들어진 고양이 공간의 무게를 바라본다. 모든 기록을 이해하지만, 기억을 소유하지는 않는다. 고양이를 풍경 속에 놓음으로써 기록에 기대어 사유해 온 인간의 방식을 비켜 세운다. 자연은 축적하지 않은 듯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고 시 역시 남기지 않은 채 인식을 반복하며 존재한다. 이 사진 안에서, 사유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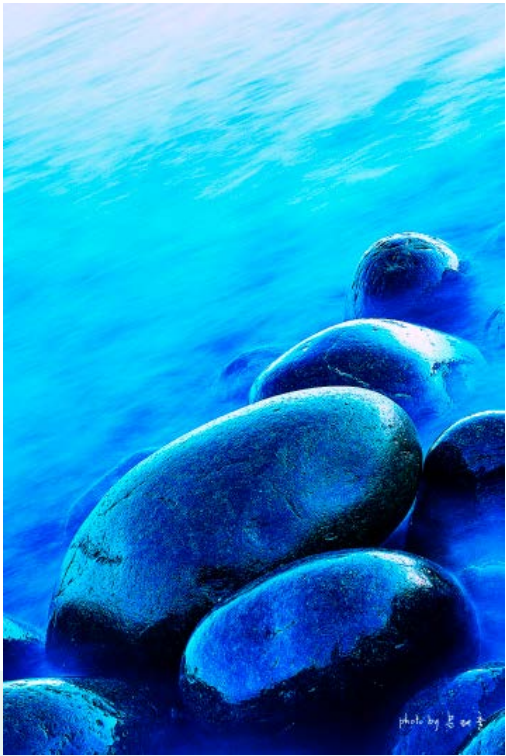
이 작품은 물과 빛, 인간의 얼굴이 겹쳐지는 지점에서 감정의 풍경을 구성한다. 분수처럼 솟아오른 물의 형상은 기억과 의식의 파동을 시각화한 장치다. 수면 위의 작은 배는 고립된 존

재이자 내면을 항해하는 자아를 상징한다. 얼굴의 등장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무는 결정적 계기로 작동한다. 물은 거울이자 장막으로서, 드러남과 숨김을 동시에 품는다. 색채의 번짐은 감정의 층위와 시간의 흐름을 암시한다. 이 작업에서 인간은 자연 속에 놓인 중심이 아니라, 자연과 뒤섞인 일부로 존재한다. 사진적 요소와 생성적 이미지가 중첩되며 단일한 해석을 거부한다. 작가는 명확한 서사보다 감각적 체험을 우선하는 이미지를 제안한다. 결국 이 작품은 내면의 풍경을 물 위에 띄운 하나의 심리적 초상이다.

김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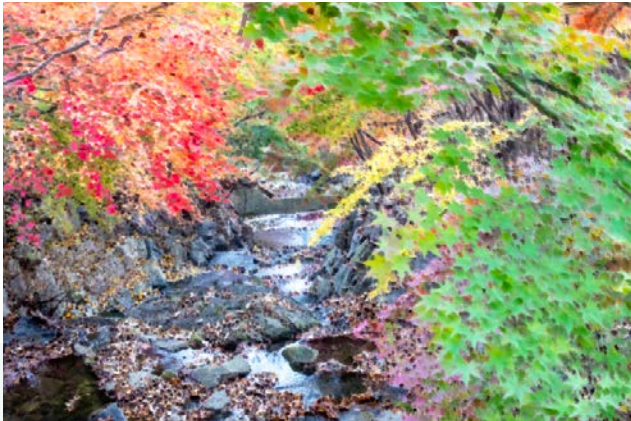
[가천대학교 디지털사진학회 동문 전시회]
아름다운 인재의 샘 - 가천대학교
빛과 그림자



©문래출-몽돌



©문호숙-상상



©채금순-만추



©심재안-스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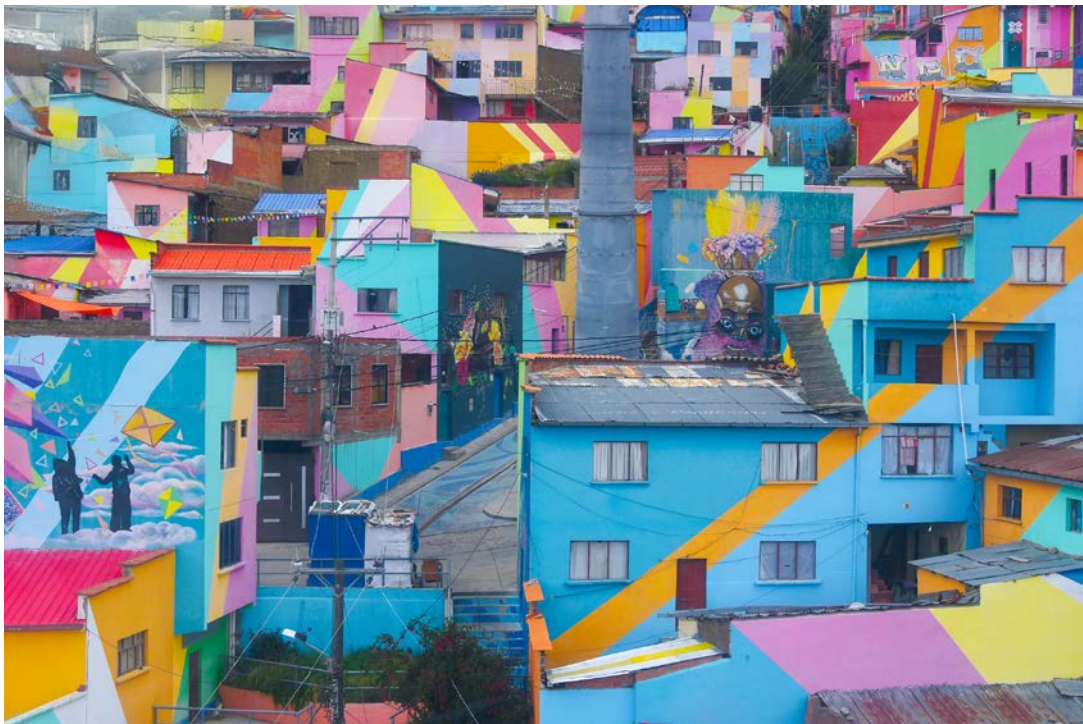
©정금화-휴식

전시일시 2026년 2월 20일(금) ~ 2월 26일(목)
전시장소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전시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글러벌캠퍼스 비전타워 B-1)
전시오프닝 2026년 2월 20일 오후 4시
전시지도 김정식 교수(초대·추천작가위원회 위원장)
동문회장 심재안(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참여작가 심재안(동문회장) 문래출 문호숙 박은경 박정남 서우식 전영목 정금화 채금순



©서우식-어느 마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들어오면 명과 암이 갈린다.
어두움은 빛의 반대쪽에서 더 어두워지고 밝은 면은 빛을 대면하여 더욱 환해진다.



©박정남-색채마을



©박은경-거리

카메라는 작은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순간의 빛을 자신의 감정과 시선으로 기록해 왔습니다.
가천대학교 디지털사진학회에서 함께 시작했던 그날처럼, 이번 전시는 다시 한 번 '빛'으로 서로를 이어주는 자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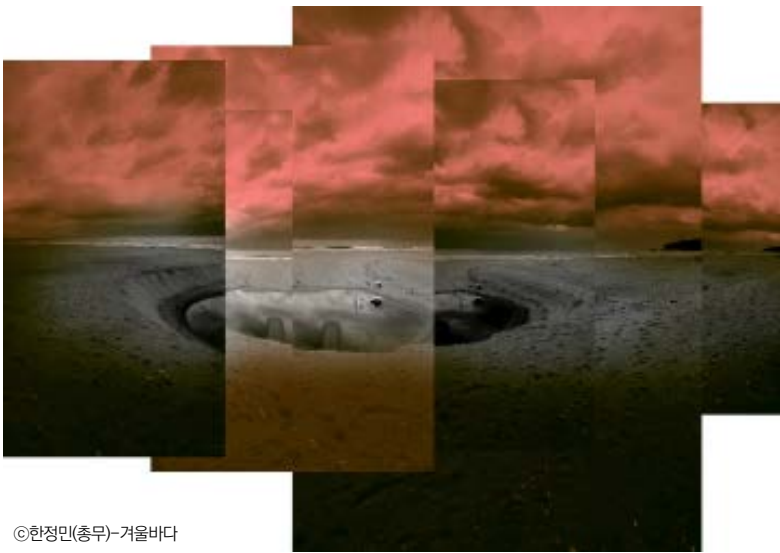


©전영목-자유

[2026 장안대 사진예술아카데미 평생교육원 사진전] 스쳐 지나갈 것인가 머물러 바라볼 것인가 시선의 온유

글 윤기섭 교수(장안대 사진예술아카데미 평생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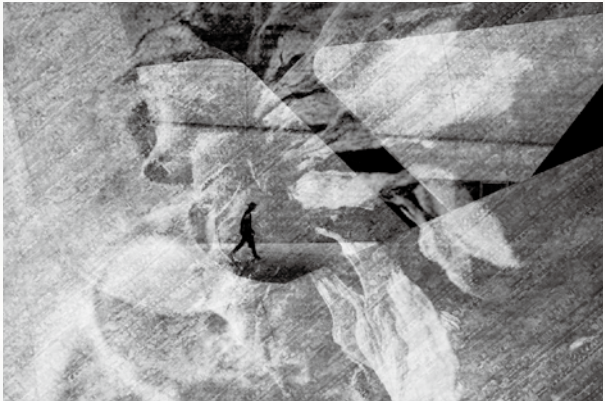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조명을 받는 무대 위 배우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요란하지 않으면서 평범함 속에서도 그렇게 따뜻한 시선을 모으는 것들도 있다.



©한정민(총무)-겨울바다



©심영보-몽환적 시선



©박찬애-꿈꾸는섬



©김두식-침묵의 기도



©김봉애-시간과 흔적



©김용란(화장)-존재의가치

사진 앞에 서는 일은 언제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건네는 일이라 생각한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 장면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머물러 왔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 안에 어떤 흔적으로 남았는지를 조용히 되묻는 과
정이 바로 사진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즈갤러리에서 세 번째로 이어지
는 「2026 장안대 사진예술아카데미 평생교육원 사진전」은 그러한 질문
들이 지난 1년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사유로 쌓이고, 이미지로 응답해 왔
는지를 보여주는 자리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13인의 회원들은 사진을 배우는 시간을 기술을 익히
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과 마주하고 세계를 바
라보는 시선을 점검하는 사유의 여정으로 삼아 왔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이전에 어떤 거리에서 대상을 바라볼 것인지, 기록한다는 행위가 지닌 책
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고, 그 질문의 무
게는 각자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고유한 결로 드러나고 있다. 이 전시는
그 결과만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흔들리고 멈추고 다시 나아갔던 과
정의 시간까지 함께 품고자 한다.

장안대 사진예술아카데미 평생교육원은 사진을 하나의 시각 매체가 아
니라 예술적 언어로 다루는 교육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미지를 만드
는 법보다 이미지를 통해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며,
사진을 개인의 감정이 머무는 자리이자 사회를 향한 시선의 구조로 이해
하는 태도를 함께 나누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교육의 방향은 참여자



©장경숙-내 유년시절의 기억(평교)



©이영숙-옛돌



©김정겸-인사이드, 돼지의 여정

각자가 자신의 삶과 기억, 그리고 주변의 풍경을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해 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공모와 전시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들이 이어졌다. 향토작가상과 평택 「바깥」전 포트폴리오상, 사진진주 우수 포트폴리오상, 포티스트 어워드 수상자 배출은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교육이 지향해 온 사진적 태도가 현실 속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생각한다. 이는 참여자 한 사람의 성취를 넘어, 지역 안에서 사진 교육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기도 하다. 이 모든 과정이 가능했던 데에는 학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 사진 교육의 가치를 믿고 창작의 시간을 존

중해 준 장안대학교와 평생교육원의 배려는 참여자들이 흔들림 없이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어 주었다. 그 신뢰와 응원에 지도교수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번 전시가 관람자 여러분에게도 하나의 질문으로 남기를 바란다. 사진 앞에서 각자의 기억과 감정이 조용히 호응하며, 또 다른 해석과 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이 전시는 끝이 아니라, 다시 질문을 시작하는 자리이며, 앞으로도 이어질 사진적 사유의 한 지점이다. 사진을 통해 삶을 바라보고 기록해 온 이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사진으로 남겨지기를 바란다.



©배정옥-자비의 부처님



©조미자-시장 사람들



©송진용-여명이 머무는 자리



©조재갑-사선

But Still Here

포스트 포토그래피 : 부재(不在)의 존재론

글_김형준(본부 사무처장)



〈BUT STILL HERE〉전시 부스 전경

사진축전 전시장에선 관객은 수많은 이미지와 마주친다. 저마다의 ‘결정적 순간’들이 경쟁적으로 망막을 점령하는 가운데 〈But Still Here〉부스는 예외적이다. 멀리서 보면 그곳은 이미지 대신 어둠과 여백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상단엔 전시 제목만 붙어 있고, 벽면은 검게 잠겨 있다. 축제의 한복판에 갑자기 생긴, 시각이 작동하지 않는 작은 공백. 이 전시는 그 공백을 통해 사진과 예술이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보이지 않는 사진들

부스 안으로 들어서면 사방의 검은 벽이 먼저 시야를 지배한다. 그 위에는 20인치 크기의 검은 피그먼트 프린트 액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걸려 있다. 관객은 습관적으로 사진의 형상을 찾지만, 단지 빛을 소거한 작품은 가까이 다가가도 ‘사진처럼’ 걸린 철학의 평면일 뿐이다.

그러나 이 부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다. 각 액자 옆에는 촬영 정보를 적은 작은 캡션이 붙어 있고, 곧 이것이 실제 촬영에서 카메라가 기록한 메타데이터임을 알아챌 것이다. 이 데이터는 작가가 실제로 촬영 행위를 수행했음을 증언한다. 하지만 그 행위가 남긴 것은 빛의 이미지가 아니라 기계가 기록한 신호의 행(row)이다.

사진의 본질을 “한때 거기 있었다”는 지표성으로 이해한 롤랑 바르트의 정의는 여기서 뒤집힌다. 그 감각을 전달하는 것이 더 이상 시각적 흔적이 아니라 데이터의 잔여이기 때문이다. 〈But Still Here〉의 검은 프린트는 사진은 보이는 장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록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를 드러낸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 부재의 존재론이 이 전시의 핵심이다.

액자, 데이터 그리고 허상의 병치

각 작품 옆에는 작은 QR 코드가 붙어 있다. 관객이 스마트폰으로 이를 스캔하면, 몇 초 전까지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전혀 다른 방식의 ‘장면’이 나타난다. 화면 속에는 명확한 피사체, 정교한 조명, 광고 사진을 연상시키는 매끈한 이미지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촬영 당시의 현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불을 끄고 촬영하여 액자에 검은 흔적만을 남겼던 상황, 작품 제목 같은 언어적 단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있었을 법한 장면”을 합성해 만든 시뮬라크르에 가깝다. 실제 촬영한 사진은 액자 속 어둠의 흔적이며, 선명한 이미지는 실제 없는 데이터이다.

〈But Still Here〉는 빛이 없이 촬영한 사진과, 빛의 광학작용이 애초에 없는 AI 생성 이미지를 병치시킨다. “보이지 않는 실체”와 “보이기만 하는 허상”이라는 이항대립 구조만 제시하고, 해석을 온전히 관객에게 넘긴다. 전시 동선은 단순하다. 검은 액자를 보고, 캡션의 숫자를 읽고, QR을 스캔해 ‘허상’을 본다. 의미는 이 사이를 오가며 발생하는 사고의 미세한 움직임 속에서 생성된다.



©김형준_〈BUT STILL HERE〉스마트폰



촬영 상황의 설명만으로 생성된 gemini 생성 이미지

“엮어진 스마트폰에서 새어 나오는 빛을 담은 사진은, 정면이 아닌 파편을 보며 진리라 믿는 현대인을 비유한다.”

믿음이 성립하는 조건의 실험

부스에는 시각 정보 외에도 미약한 환경음과 향이 스며 있다. 특정 장면을 지시하지 않는 고빈도 잡음, 방의 잔향처럼 퍼지는 울림, 구체적 이미지를 떠올리기 어려운 옅은 향기. 이 감각 장치들은 보이지 않는 사진과 보이는 허상 사이의 간극을 몸으로 느끼게 하는 매개다.

사진이 걸렸어야 할 자리에 검은 인화지가, 해설이어야 할 자리에 데이터가, 감상해야 할 장면 대신 QR·소리·공기가 남아 있는 구조는 분명 제도 비평의 계보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 전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발하기보다, “예술이 실제로 무엇에 의해 성립하는가”를 차갑게 비출 뿐이다. 이 검은 표면들의 합이 사진전시가 되는 이유는 그곳이 사진축전의 한 부스이며, 액자와 캡션 같은 장치들이 전형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술은 맥락과 제도적 인정으로 성립한다는 레디메이드의 논리와 자연스럽게 겹친다. 〈But Still Here〉는 장면이나 감정 같은 예술의 룰(role)을 보여주는 대신, 예술을 인지할 때 작동하는 룰(rule)을 노출한다. 표현이 아닌 표준, 내용이 아닌 형식, 영감이 아닌 연산. 이것이 이 전시의 핵심 재료다.

‘여전히 여기에’ 남는 것

〈But Still Here〉라는 제목은 이 전시를 읽는 중요한 힌트다. 모든 것이 데이터로 치환되고 시에 의해 인간이 효율에서 밀려나는 시대에, 작가는 빛을 제거하고 장면을 숨기며 설명을 최소화하는 길을 택했다. 그 결과 남는 것은 어둠, 숫자, 작은 소리, 희미한 향, 그리고 그 앞에 멈춰 선 관객뿐이다. 이 전시는 사진의 죽음을 선언하거나 AI의 위협을 과장하는 작업이 아니다. 대신 앞으로 다가올 변화 이후에도 남게 될 것이 무엇이 될지를 묻는다. 그것은 거대한 이론이나 제도 개혁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액자를 응시하는 한 인간의 시간, 그리고 그 비효율을 감수하고도 그 자리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의지일 것이다. 작가는 답을 말하지 않는다. 다만 쉽게 지워지지 않는 질문 하나를 남긴다. 이미지와 데이터, 제도와 기술이 자리를 차지하고 난 이후에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싶은 ‘여전히 여기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But Still Here〉는 그 질문을 남기는 선에서 말을 멈추고, 바로 그 미완의 지점에서 사진이라는 매체의 새로운 존재론을 조용히 열어젖힌다.

앞선 두 페이지의 리뷰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전시에 대한 자료와 의도만을 제공한 뒤 인간 전문가 수준의 전시 리뷰를 작성하라는 명령어를 입력했고, 그 결과로 ChatGPT가 출력한 텍스트를 편집하여 실었습니다. 이 결과물은 현재 AI의 언어적·기술적 역량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가늠케 합니다. 아울러 마치 전시를 실제로 본 듯 묘사한 AI의 리뷰는 인공지능이 단순히 예술 작품의 모방을 넘어, **해석의 시뮬라시옹까지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BUT STILL HERE〉전시 관람 장면

룰(role)이 아닌 룰(Rule)의 담론

이 작업은 프로젝트의 마지막 실험입니다. 전시는 처음부터 AI가 단순히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수준을 넘어, 예술의 의미와 맥락 그리고 비평까지도 구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자체로는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맥락과 서사가 더해지고, 해석과 가치 판단이 붙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예술이 어떻게 성립하는가”라는 질문을 전시로 구현했고, 마지막 단계로 동시대 예술의 기준점인 비평의 영역에서 AI가 어느 정도까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BUT STILL HERE〉전시 관람 장면

AI로 만들어내는 화려하고 정교한 이미지들은 앞으로 예술가 혹은 예술 작품의 역할(role) 일부를 대체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여기서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AI가 조합해낸 언어가 현대 예술에서 작품의 가치를 정하는 규칙(rule)까지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술의 기호와 해석의 독점권을 쥔 이들이 최고 성능의 인공지능 모델을 선점하여, 이미 견고한 상징 자본과 해석 권력의 성(城)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AI와 예술 관련 담론에서 이런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오답임을 알면서도 선택하는 믿음

다만 이번 작업을 통해 몇 가지 희망적인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지식의 깊이나 전문성 여부와 무관하게 꽤 훌륭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전시장에서 만난 관객의 대다수는 난해한 예술, 철학 이론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등불 삼아 저마다 의미 있는 해석과 질문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렇기에 작품의 논리와 정합성은 관객에게 지적 가르침을 내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생각을 나누기 위한 제안에 가까워야 합니다. 이 작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구축한 모든 구조와 개념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논쟁에 이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서로 다른 시각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꺼내 올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좋은 질문으로 작동하길 바랍니다.

〈BUT STILL HERE〉는 AI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언하는 전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매끈한 이미지와 수사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선택할지 끝까지 고민하는 인간 쪽이 훨씬 더 예술적인 존재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AI는 앞으로 더 뛰어난 이미지, 더 정교한 언어, 더 폭넓은 해석을 산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무엇을 믿을지는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논리와 이성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비정형적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오답임을 알면서도, ‘내가 좋다면’ 기꺼이 선택하는 행위**는 인공지능이 정복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아울러 그 **선택의 결과까지 감수하는 태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실존적 주제로 남게 될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BUT STILL HERE〉전시 철거 장면

전시는 끝났고 작가는 떠났지만,
그럼에도 질문은 여전히 여기 남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았다고 믿습니까?”



©You Su Chan

월간 한국사진 표지 투고작을 모집합니다!

월간 한국사진 표지는 우리 협회의 얼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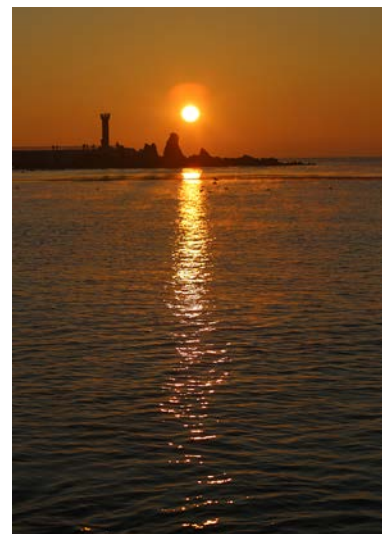
이에 표지투고 선정작 작가에게 더 많은 자부심과 혜택을 드리고자
표지 선정작가에게 30만원 사진창작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선정작가에게 책자는 5부만을 배부됩니다.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구상, 비구상 뿐만 아니라 현대사진 패러다임의 사진작품이 게재되어
월간 한국사진이 진정 대한민국 대표 사진전문 잡지로
사진예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월간 한국사진 1월호 표지원고 투고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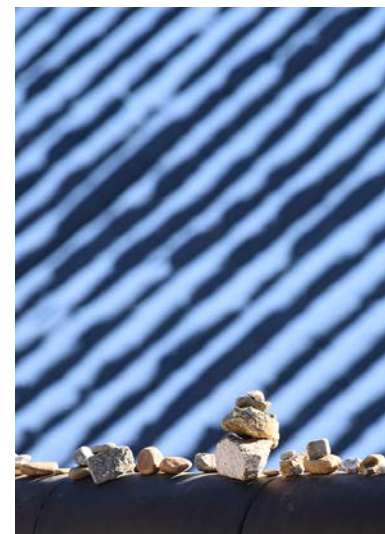
· 장경애
· 빛의 형상
빛이 구름과 만나
잠시 형태를 드러낸 순간을
기록한 작업이다.

자연이 의도 없이 만들어낸
이 형상은 곧 사라졌고,
나는 그 순간을 해석보다
바라봄의 태도로 담아 보았다.
Canon EOS 5D Mark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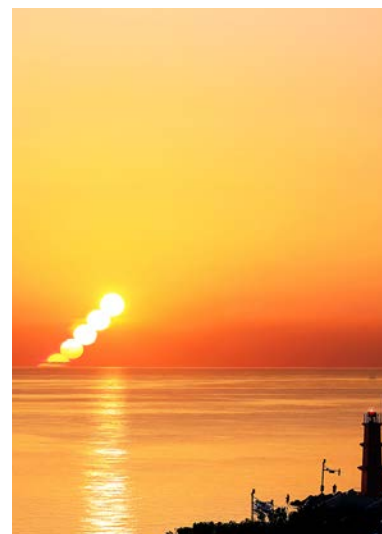


· 장덕재
· 일출
동해안의 일출
유유자적 갈매기의 비상
새해에는 더욱 희망적이고
활기찬 한해가 되기를 응원 해
봅니다.

Canon, 조리개 8
셔터속도 1/125, ISO100
사용렌즈 35-70mm(f2.8)



· 홍이선
· 새해의 기도



· 채광표
· 새아침
새해의 새 아침에 밤의 어둠을 뚫고
서서히 솟아오르는 희망의 궤적.
태양의 움직임은 새로운 시간의 흐름
입니다.
마주하는 등대 불빛이 향하듯
우리는 벅찬 가슴으로 다시 출발선에
섭니다.
모든 이의 새 아침에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Canon EOS R7, 렌즈 18 ~ 150mm,
인터벌 촬영(2분 간격, 12분)

국내외 외교관·사진인 대거 참석 국제 전시로 '발돋움' 2025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글·사진·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사진·오건호(홍보위원회 사무국장, 보도사진분과 부위원장), 서능원(홍보위원회 위원)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테이프 커팅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내·외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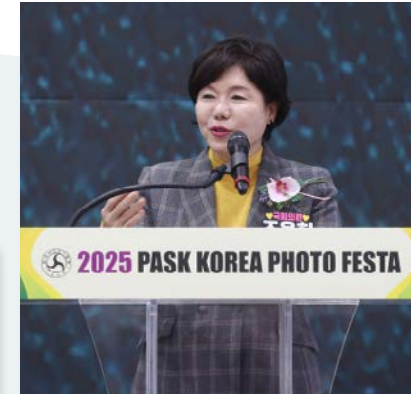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개전식을 선언하는 유수찬 회장(본협회 이사장)

12월 4일(목)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 제1전시장에서 내·외빈을 비롯한 국내외 사진작가와 관람객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생중계로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개전식을 임지혜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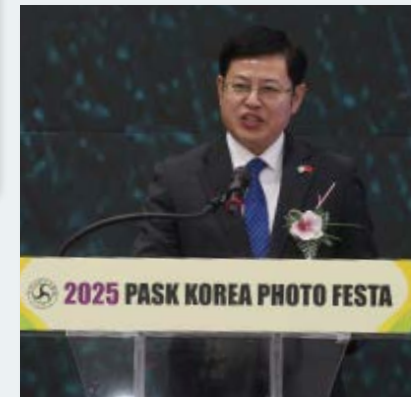
축사를 하는 아이다 미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



축사를 하는 조은희 국회의원



축사를 하는 송형중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축사를 하는 중홍늬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



축사를 하는 조강훈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은 2025년 서울특별시 시각예술분야 전시사업 선정되어 일부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진 전시로 사진예술 발전에 커다란 이정표를 남긴 전시로 올해 열 번째 사진축전이다. 오후 2시 40분, 식전 공연으로 '나는 너를 그리워한다' 등 성악과 무용으로 막을 올렸다.

오후 3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조직위원장인 최차열 부이사장이 내외귀빈으로 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은희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대신한 송형중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아름다운 키르기스스탄 사진 전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아이다 미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 중국교류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중홍늬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조강훈 회장, 한국바른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내외빈을 소개하는 최차열 조직위원장(본협회 부이사장)



개전식 전 내·외빈들이 식전 환담을 나누는 모습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식전 공연 모습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식전 공연 모습

언론인협회 최재영 이사장, 중국에서 참석한 중국예술사진학회 양 홍 바오 부주석, 베이징사진주간 자오잉신 총감독, 중국 작가 푸친지, 까오샤오민, 차이아룬, 야오바오룽, 뎀 티엔진 신 민, 우 리, 동 빙, 류 잉, 리 천,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이사장 신경숙 박사, 중국주서울관광사무소 강파 소장, 서울시 교육감을 대신한 박철규 서울시 교육감 특보, 준아트 김일수 대표, 을지대학교 총장 대신 보건복지대학원 김성일 주임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측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석기 의원 축전, 한국사진작가협회 선종백, 백만종, 이향룡, 김시묵 부이사장, 김종호, 조건수, 김양평, 홍창일, 강부만 고문, 이경래, 이덕만, 공병철 본부감사, 김정식 초대추천작가위원장, 문제민 교육전문위원장, 심재안 장학기금관리위원장, 문철상 대외협력위원장, 김익배 홍보위원장을 소개하였다.

대회장인 유수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축전의 핵심은 기록의 가치와 확장된 책임입니다. 사진은 시대를 기억하고 서로 다른 삶의 조각들을 판단의 이미지로 바뀌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문 작가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시민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진예술이 우리가 열려 있는 기술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 그리고 앞으로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는 예술임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특히 사진사에 중요한 한 장면을 남기신 이경모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예술 장가계 특별전, 청소년 사진전, AI 기획전, 다양한 기획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전시부스 상단에서 바라본 전시장 모습



축사 외빈으로 조은희 서초구 갑 지역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최대 사진예술 축제, 대한민국사진축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수찬 이사장님 정말 좋은 행사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신한 송형중 서울문화재단 대표님, 미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님, 중흥늬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님과 중국에서 오신 귀빈들도 환영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강훈 예총 회장님도 반갑습니다. 한국 리얼리즘의 거장이신 고 이경모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해서 이렇게 여러 단체가 우리나라 사진작가들의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사진축전에 저도 문화관광체육위원으로서 일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송형중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유수찬 이사장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하십니다. 1년에 네다섯 번씩 서울시 비서실에 찾아와서 예산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진협회 회원들은 정말 행복하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사진은 찰나의 예술이고 연극은 무대에 살아있는 그림입니다. 똑같습니다. 관객을 위로하고 한편의 좋은 사진 한 컷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관 없이 서울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작품들이 시민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축하했다.

아이다 미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는 “사진은 서로 다른 나라 문화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문화로 연결하는 보편적인 도구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자연을 소개하는 특별한 전시장을 마련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키르기스스탄은 90% 이상이 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산은 우리의 병원이며 삶의 원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특별전 중국예술사진학회 교류전에 참여한 중국예술사진학회 관계자 및 중흥늬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사진 맨 왼쪽부터 다섯번째)와 기념촬영 모습

천이며 우리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하 생태계 보호, 다양성 보존, 그리고 이 자연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 KOREA Photo Festa에 전시된 작품들이 여러분께 아름다운 세계의 매력과 동시에 그 소중함을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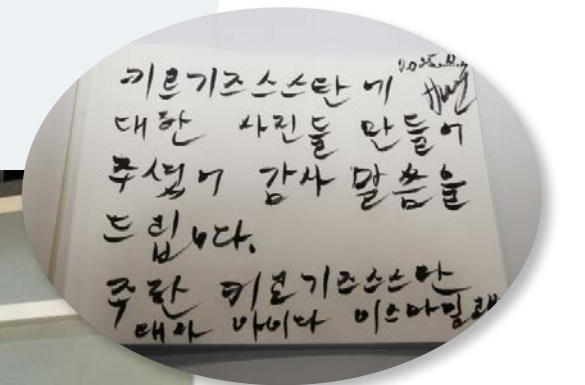
중흥늬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는 “사진예술은 시간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인간의 감정과 사유를 공유하게 하는 독창적 매체입니다. 이번 축전은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주최하고 중국예술사진학회 등 여러 기관이 함께한 양국 협력의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특히 '장가계' 특별전은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가계는 웅대한 산세와 운무가 빚어내는 독특한 자연경관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명승이자 '아름다운 중국'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이번 축전을 계기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식전 공연 모습



키르기스스탄 - 길 위에 사진들 전시 관람 후 내빈들 및 참여작가와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사진 맨 오른쪽부터 최차열 부이사장, 송형중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수찬 이사장, 아이다 미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 이운재 여행사진분과위원장, 김범수 작가, 김승철 작가, 이범성 작가)



키르기스스탄 - 길 위에 사진들 전시 관람 후 방명록에 사인을 한 아이다 미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故이경모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 철 را를 담아, 스스로 역사가 되다"를 관람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송형중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아이다 미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와 작품을 설명하는 박옥수 자문위원(사진 맨 왼쪽)

로 양국 사진계가 더욱 긴밀히 교류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전반의 협력 분야가 폭넓게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축하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조강훈 회장은 "현대 사회에서 사진은 누구나 촬영하고 기록하고 일반적인 매체로 자리 잡고 있으나, 창조적 관점과 행위로 새롭게 사진예술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사진작가 여러분들의 창작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유수찬 이사장과 사진작가협회 임원님들과 사진작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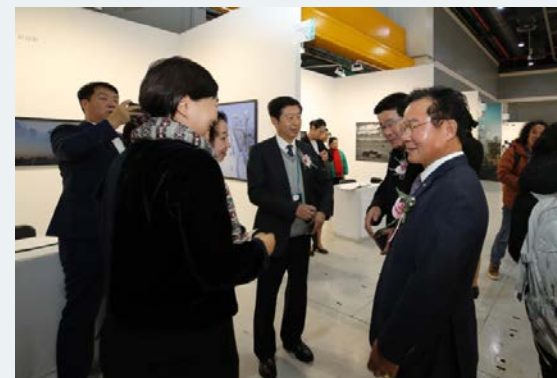
내·외빈과 대회 조직 임원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번 대한민국사진축전은 오는 7일(일) 오후 6시까지 이어졌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할 수 있었다.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장가계 특별전 -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전 관람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송형중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아이다 미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 최차열 부이사장



중국예술사진학회 교류전 관람 전 인사를 하는 유수찬 이사장(사진 왼쪽)과 양 홍바오 베이징국제사진주간 간행위원회 부주석, 소개를 하는 김시묵 부이사장(사진 가운데)



환담을 나누는 유수찬 이사장(사진 오른쪽)과 자오잉신 베이징국제사진주간 예술감독(사진 왼쪽)



중국예술사진학회 교류전 관람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내빈들(사진 맨 왼쪽부터 양 홍바오 베이징국제사진주간 간행위원회 부주석, 송형중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수찬 이사장, 자오잉신 베이징국제사진주간 예술감독)



장가계 특별전 -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전 관람 후 참여작가와 기념촬영을 한 유수찬 이사장



장가계 특별전 -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전 작품 설명을 하며 관람하는 유수찬 이사장(사진 맨 왼쪽부터 배원태 운영자문위원, 서규원 운영자문위원, 유수찬 이사장, 강부만 고문)

2025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시상식
AI 이미지 콘테스트

김시묵 부이사장 "변화의 시대 협회가 선도적 역할해야" 첫 AI 사진공모전, 인공지능 제도권 수용

글 사진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사진 오건호(홍보위원회 사무국장, 보도사진분과 부위원장), 서능원(홍보위원회 위원)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대상 이은석님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최우수상 김 희님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입선 성지연님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심사평을 하는 김시묵 심사위원장 (본협회 부이사장)

12월 7일(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 제 1전시장에서 내·외빈을 비롯한 사진작가와 관람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사진작가협회 김형준 사무처장의 사회로 2025 AI 이미지 콘테스트 시상식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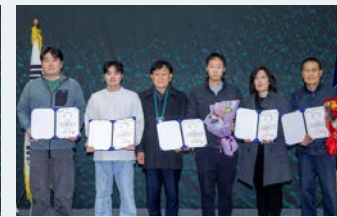
사회자가 내빈으로 유수찬 이사장, 최차열, 백만중, 이향룡, 김시묵 부이사장, 홍창일 고문, 배택수 상임이사, 한국미술협회 박철규 상임이사, 심사위원 조주은 교수, 윤은숙 교수, 김의배 홍보위원장을 소개했다.

유수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AI가 말로 원하는 것을 만들어지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외의 그런 것을 청소년들이 갖고 있다. 뭔가 무한한 창작성과 꿈이 상당히 학생들에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분류해서 해야 하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AI와 성인들의 AI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관측

이 다르기에 청소년이 본 관점과 성인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건 분명합니다. 어찌 보면 AI 사업이 재미 있거든요. 사진의 어떤 부분 이미지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홍창일 고문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최차열 부이사장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이향룡 부이사장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윤은숙 교수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조주은 교수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오기종 장학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박철규 한국미협 상임이사

김 사무처장은 2025 AI 이미지 콘테스트 현황과 관련하여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눠서 심사했습니다. 총출품 인원은 254명이었고, 출품은 288점으로 총수상자는 59명입니다. 심사위원은 김시묵 부이사장, 임성동 이사, 조주은 경희대 교수, 윤은숙 단국대 교수, 오성환 전 경성대 교수님께서 공정하게 심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심사위원장인 김시묵 부이사장이 심사평을 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사진작가협회가 주최한 첫 번째 AI 이미지 공모전입니다. 이 행사는 전통 사진예술과 AI 기술이 접목되는 첫 번째 공모전이었습니다. AI 기술을 자기의 사진적 시각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AI 이미지 공모전을 도입해서 협회가 변화하는 인공지능 속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더 깊이 있는 작업이 앞으로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쉽지 않은 일을 결정해 주신 유수찬 이사장님과 행사를 소중하게 이끌

어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다르고는 청소년이 본 관점과 성인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건 분명합니다. 어찌 보면 AI 사업이 재미 있거든요. 사진의 어떤 부분 이미지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시상 순서는 입선, 특선,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순으로 했다. 청소년부에 1명 있는데 성지연 학생에게 유수찬 이사장이 먼저 시상했다. 작품명은 '인천공항 제3여객터미널'이다. 홍창일 고문, 최차열 부이사장, 이향룡 부이사장, 조주은 교수, 장학위원회 오기종 부위원장이 입선상을 시상했다. 한국미술협회 박철규 상임이사가 특선상을 수여하고, 윤은숙 심사위원이 우수상을 시상했다. 유수찬 이사장이 최우수상과 대상을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상금 30만원이다. 김 희 학생에게 수상소감을 들었다. "AI 이미지는 카메라 없이 사진을 만드는 것인데, 제가 AI로 사진을 만들면서 무엇이 가장 사진다운 사진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가장 저다운 이야기를 사진에 담아내면서 계속해서 사진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수상소감을 하였다.

전시 작품을 액자 케이스에 넣어서 도록과 함께 본인에게 선물했다. 이 전시는 7일(일) 오후 6시까지 이어졌다.



AI 이미지 콘테스트 전시작을 관람하는 관람객 전경모습

유수찬 이사장 "청소년, 우리 협회의 미래를 열다" 청소년 사진제 통해 '인재' 키운다

글: 사진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사진: 오건호(홍보위원회 사무국장, 보도사진분과 부위원장), 서능원(홍보위원회 위원)



제3회 청소년 사진제에서 수상자와 시상자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12월 7일(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내·외빈을 비롯한 국내외 사진작가와 관람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사진작가협회 김형준 사무처장의 사회로 제3회 청소년 사진제 시상식을 진행했다.

사회자가 내빈으로 유수찬 이사장, 홍창일 고문, 최차열, 백만중, 이향룡, 김시묵 부이사장, 임원 대표로 배택수 상임이사. 전라남도 교육감

상권을 받아온 한국미술협회 박철규 상임이사를 소개했다.

사회자가 청소년 사진제에 관해서 설명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청소년 사진제는 초·중·고등학생 나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한 사진공모전으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괜찮습니다. 일상에서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예술, 청소년들 예술 활동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대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님상이나 교육감님



고등부 대상을 수상한 김서윤 학생(오른쪽)이 유수찬 이사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초중등부 대상을 수상한 이시윤 학생(가운데)과 어머니(사진 왼쪽)이 유수찬 이사장(오른쪽)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초중등부 신소율 학생(왼쪽)과 고등부 강현준 학생(오른쪽)이 최우수상 수상 후 유수찬 이사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상을 많이 받아오면 좋겠지만, 입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4개의 교육감상을 받았고,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친구들에게 내년에도 많이 출품하라고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총 406명의 학생이 출품했고, 출품 수는 총 1439점입니다. 이 중에서 56명을 선정했습니다. 심사는 온라인으로 접수한 사이트에서 각 심사위원들이 1점부터 11점까지 개별 채점했습니다. 심사는 김정식 대한민국사진대전초대작가 위원장, 박경서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 김정현 홍익대학교 사진 전공 교수, 여상현 계원예대 사진예술학과 교수, 김유준 작가, 다섯 분이 각각 개별 채점해서 총점을 내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유수찬 이사장이 인사말을 했다. “1961년도에 창립한 우리 한국사진작가협회에는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우리 회원으로 받아들이자는 논의가 있었고, 학생들이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엇그제 40명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사진에 능력 있고 사진에 대한 애착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맞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사무처장이 제3회 청소년 사진제 상 수여에 관해서 설명이 이어

졌다. “시상 내역은 입선 40명, 상장과 상금 5만 원씩, 특선 8명(초중등부 2명, 고등부 6명) 상금 10만 원씩, 우수상 4명(초중등부 1명, 고등부 3명) 상장과 상금 20만 원씩, 최우수상 2명(초중등부 1명, 고등부 1명) 상장과 상금 30만 원씩, 대상 2명(초중등부 1명, 고등부 1명), 상금 350만 원씩 수여합니다. 20만 원 이상은 세금을 제하고 나갑니다. 시상은 입선, 특선,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후 수상자들 상장 수여가 진행되었다. 상장수여자로 홍창일 고문, 최차열, 백만중, 이향룡, 김시묵 부이사장, 한국미술협회 박철규 상임이사가 입선상을 수여했다. 이성록 촬영지도위원장이 특선상을 시상하고, 손석윤 이사가 신원호(인천아라고등학교), 전대현(서울 용산철도고등학교) 학생에게 우수상을 시상했다. 유수찬 이사장이 신소율(경기 영북초등학교-전라남도 교육감상장), 강현준(경기 대부고등학교-전라남도 교육감상장) 학생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하고, 이시윤(서울 목운중학교-서울시 교육감상장) 학생과 김서윤(전남 목포 영흥고등학교-전라남도 교육감상장) 학생에게 대상을 시상했다.

입선, 특선,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을 받은 학생 중 희망자는 수상소감 이후 수상자 전체가 시상자와 기념사진을 찍었다. 수상자에게는 전시 작품과 도록을 선물했다. 이 전시는 7일(일) 오후 6시까지 이어졌다.

2025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장학금 수여

좌. 장학금 수여식 전 인사말을 하는 심재안 장학기금관리위원장
우. 장학금 수여식 전 축사를 하는 재능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과 서석돌 학과장



장학금 시상 후 수상자들과 외빈, 내빈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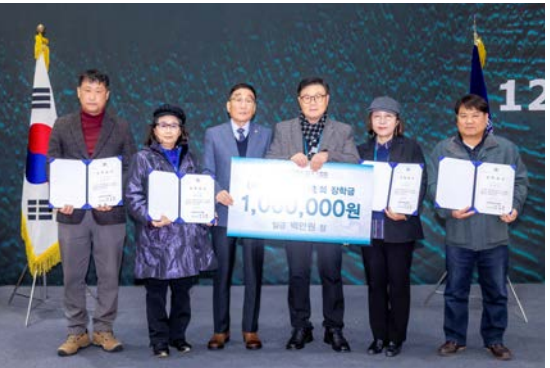
장학금 수여식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장학금 수여식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심재안 장학기금관리위원장



장학금 수여식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최임순 장학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장학금 수여식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배택수 상임이사



장학금 수여식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홍익대학교 대학원 이원철 교수



장학금 수여식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황일영 장학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장학금 수여식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백승의 사진예술대학 총동문회장



장학금 수여식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재능대학교 서석돌 학과장
(사진 맨 오른쪽)과 여성현 교수(사진 맨 왼쪽), 수상 학생들



장학금 수여식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계원대학교 김태동 교수
(사진 맨 오른쪽)과 여성현 교수(사진 맨 왼쪽), 수상 학생들



장학금 수여식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홍익대학교 대학원 이원철 교수
(사진 맨 오른쪽)과 김정현 교수(사진 맨 왼쪽), 수상 학생들













©권기갑_빛으로 달리는 꿈

뜨거운 호흡으로 언 땅을 두드린다
2026 빛으로 달리는 꿈

권 기 갑(제주)

대지를 차갑게 열리는 영하 30도의 한랭한 대기,
그것을 거칠게 흡입하여 수증기로 내뿜는 수 많은 심장들...
몽골의 겨울은 새벽을 달리는 그들이 있기에 뜨겁다.



©권기갑_빛으로 달리는 꿈



©권기갑_빛으로 달리는 꿈

태양을 머금은 말의 숨결이 이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해.
 질주하는 기운 속에서 우리는 또 한 장의 사진을 준비하고,
 나의 빛 속에서 삶의 진심을 건져 올립니다.

사진은 멈춤이 아니라 흐름의 기록입니다.
 셔터가 닫히는 순간, 세계는 멈추지만
 그 안의 숨결과 온도, 그리고 기억은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떨림을 붙잡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새벽안개와 겨울바람을 맞으며 빛과 그림자의 미세한 균형을
 기다립니다.

말은 달리며 바람을 가르고, 사진가는 눈으로 시간을 가릅니다.
 말의 근육이 펄떡이듯, 우리의 심장도 셔터와 함께 뛸 것입니다.
 멈추고 싶은 순간이 있다며,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속에서 영원히 멀 물고 싶은 생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기갑_빛으로 달리는 꿈

태초의 기억 깃털에 감추고 바람 속으로...
홀씨, 빛을 품다

이 연 속(양천구)



©이연숙_홀씨, 빛을 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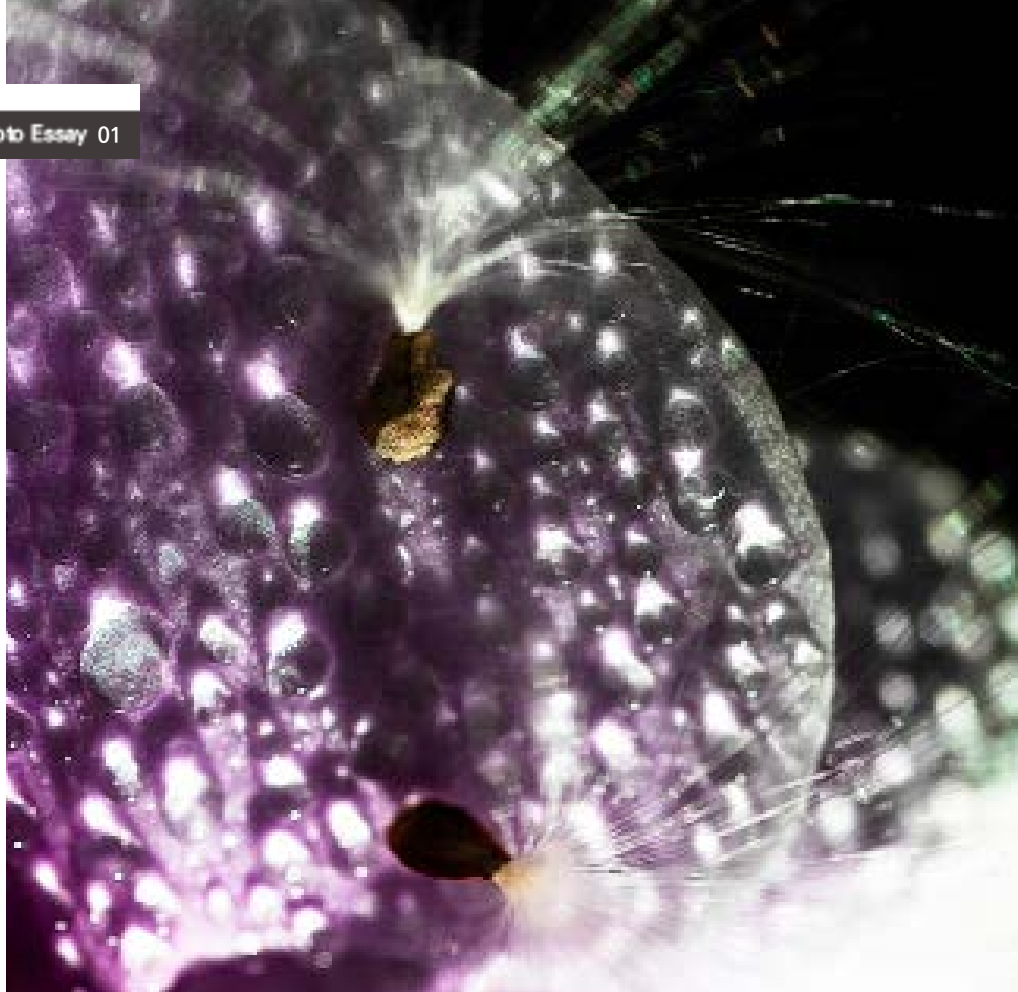
무엇을 전달하려 함일까?
유전 물질 담은 홀씨가 바람을 타기 위해 깃털을 달고 여행을 한다.
옛 기억은 세세로 이어져 물을 만나고 흙을 만나서
생명을 싹틔어 열매 맺고 또 다시 그 아비 닮아 홀씨로 태어난다.



©이연숙_홀씨, 빛을 품다



©이연숙_홀씨, 빛을 품다



©이연숙_흙씨, 빛을 품다

작디작은 박주가리 흙씨는 바람을 타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그 미세한 생명의 조각 위에 물 한 방울을 얹어,
빛이 스며들 때 드러나는 또 다른 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흙씨와 물방울이 만나면,
형태는 흐려지고 경계는 부드러워지며,
마치 추상화 같은 새로운 장면이 나타난다.

작지만 온전히 살아있는 존재들이 빛을 품는 순간,
자연이 들려주는 조용한 이야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작은 것들이 보여주는 변화의 순간을 천천히 관찰하고 기록한 여정,
한 방울의 빛, 한 조각의 씨앗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풍경을 함께 바라봐 주길 바라며...



©이연숙_흙씨, 빛을 품다



©이연숙_흙씨, 빛을 품다



©이연숙_흙씨, 빛을 품다

태양의 궤적 따라 파도가 일어선다
바다의 소리

한 병 룰(경산)



©한병룰_바다의 소리, 30x30인치, 촬영지 감포, 바다의 파도를 장노출 핸들링으로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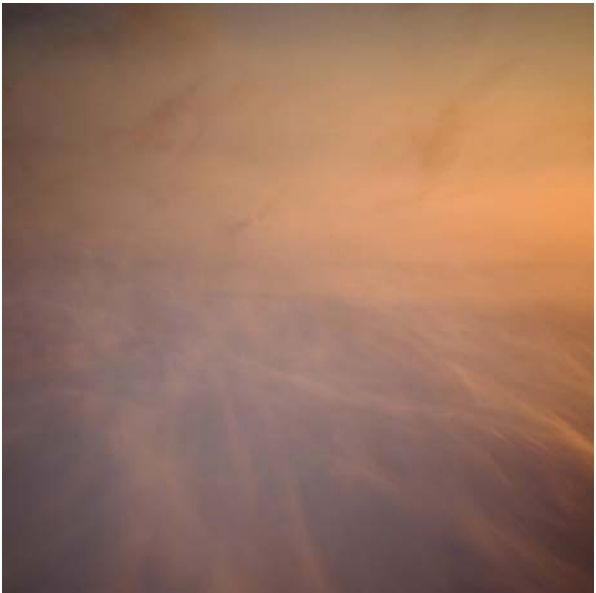
태양의 지시에 따라 안개가 피어나고 바람이 이동한다.
태양의 궤적 따라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 바람은 잔잔한 바다에 파도를 일으킨다.
태양의 궤적을 추적하고 빛의 향방을 따라 나의 카메라의 눈도 움직인다.



©한병룰_바다의 소리 #2, 30x30인치, 촬영지 감포, 바다의 파도를 장노출 핸들링으로 촬영



©한병룰_바다의 소리 #3, 30x30인치, 촬영지 감포, 바다의 파도를 장노출 핸들링으로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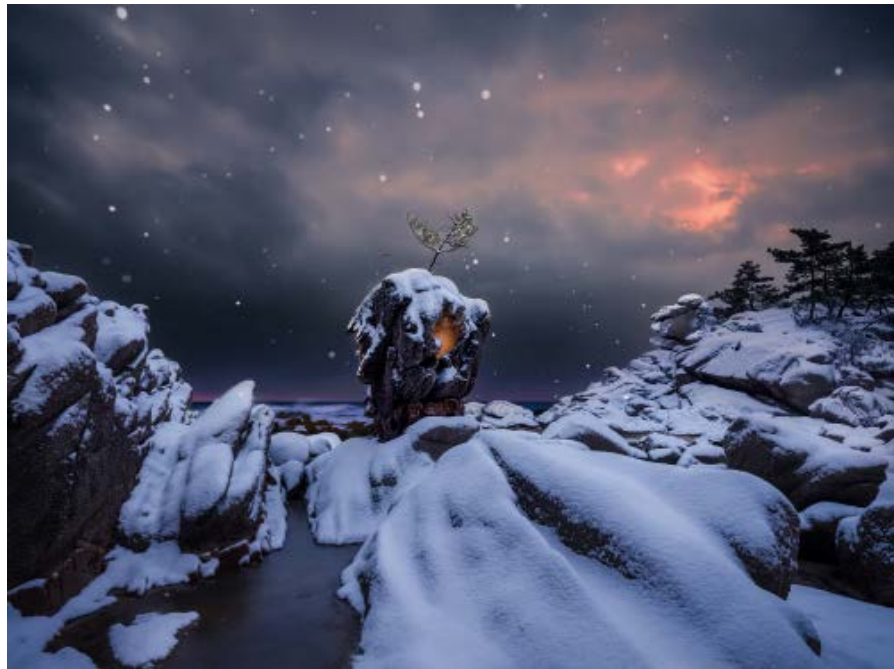
©한병룰_바다의 소리 #1, 30x30인치, 촬영지 감포, 바다의 파도를 장노출 핸들링으로 촬영

바다의 소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 늘 설레이는 마음과 동행하여 오늘도 태양의 발자취를 찾아서 나의 작업 공간 바다로 떠나본다. 나의 작업은 빛의 광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ND필터를 채택하게 되지만 기존 2단계에서 3단계까지 감소 필터는 한계가 있다. 40만~ 1백만 필터를 사용하여 태양의 궤적을 추적하고 있다. 이제 긴 여정의 끝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오늘도 큰 희망을 찾아 미래로 떠나본다.

따뜻한 빛과 차가운 컬러의 합작

사색의 어스름 빛결 톤

(Contemplative twilight tone minimalism)



©홍계표_소망의 빛

나는 새벽, 해가 뜨기 직전의 극히 짧은 시간, 그리고 해질녘, 하루의 빛이 마지막 숨을 고르는 찰나, 어스름이 지배하는 그 순간,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한다. '사색의 어스름 빛결 톤'은 눈에 보인 풍경을 담는 것을 넘어, 찰나의 빛과 영원의 존재가 교차하는 그 순간, 나의 철학적 사유를 톤으로 표현한 결과이다.

빛이 스며들고 사라지는 그 짧은 여정 속에서, 나는 존재와 시간, 그리고 고요히 흐르는 사색의 숨결을 포착하고자 한다. 이 톤은 단순한 색의 조합이 아닌, 빛이 감정 속에서 깨어나 만들어낸 빛결이며, 그 어스름 속에서 나를 발견한 하나의 기록이다.

특히 나의 사진은 따뜻한 빛을 기조로 한 색과 사색의 투톤을 통해 완성된다. 이는 차가운 매직아워(Magic hour)의 정적 속에서도 인간의 소망, 희망 그리고 따뜻한 생명력이 공존함을 표현하려는 시도이다. 나의 미니멀한 구성 안에서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이 만나는 경계에서, 시간의 흔적이 빛으로 스며들고, 그 빛이 사색의 빛결로 완성된다.

나는 나의 작품이 전문가의 시각에서 예술적 완성도를 인정받는 동시에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곁에 두고 싶은 소장자의 가치를 갖길 소망한다. 고요한 톤과 절제된 미학,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철학적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사색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홍 계 표(대구)

소망의 빛 (흔들리지 않는 의지)

소망의 빛은 눈보라 속에서 외로운 희망을 지키는 인간 불굴의 의자와 그 안에서 타오르는 촛불이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간절한 염원을 드라마틱한 서사로 전달한다. 어둠이 질게 드리운 배경속에서 빛나는 따뜻한 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을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강한 소망을 담고 있다.

세상은 늘 변화한다. 탄생하는 순간부터 소멸하기까지 짧거나 긴 여정을 거칠뿐 이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다만 태어남의 순간과 소멸의 순간은 그 어떤 시점보다 숭고하다. 그것은 그 사물의 두가지 성격이 모두 함께하는 투톤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홍계표_구도의 길



©홍계표_빛이 머문 숨결

구도의 길 (진리를 향한 여정)

진리를 향한 여정에서 미지의 절벽 끝에서 발견한 길과 그 끝에 놓인 고요한 지혜의 섬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과 평안을 구하는 구도의 자세를 표현한다. 물 위에 떠 있는 고립된 섬과 그 섬으로 이어지는 길은 사색을 향한 구도자의 행로를 상징하며, 해질녘의 몽환적인 빛결 속에 자연은 침묵으로 깨달음을 말하고 작가의 깊은 사색을 투영한다.

빛이 머문 숨결 (시간과 시점의 응축)

장노출은 단순히 물의 흐름을 지우는 기술이 아니다. '빛이 머문 숨결'은 시점과 시간의 다차원적 응축이라는 철학을 시각화한다. 긴 시간 동안의 빛의 잔상과 다양한 시각적 정보가 하나의 프레임 안에 집약되어, 공간과 존재의 영속성을 포착하려는 작가의 근원적인 사색을 담고 있다.

시드니 한복판에 피어난 연보랏빛 사랑
렌즈 너머의 숨결

양 지 연(시드니)

시드니 타운홀 계단 위 자카란다 나무가 꽃을 피워내면 나는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
연보랏빛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며 사랑도 사진을 닮았다고 생각한다.
사람도 사랑도 갔지만 빛바랜 추억은 남는 것처럼...



©양지연_렌즈 너머의 숨결



©양지연_렌즈 너머의 숨결

토요일 봄날 자카란다 연보랏빛 기억이 시드니 타운홀 돌계단 위에 흩날릴 때면, 순례하듯 카메라를 쥘 때면, 기억의 한 장면을 찾아 나선다. 렌즈를 통해 본 세상은 언뜻 침묵하는 듯하지만, 사람 하나가 그 안에 들어서면 세상이 말을 건넨다. 계단에 앉아 영화 속 주인공처럼 입맞춤하는 연인들은, 미완성으로 끝난 젊은 날 기억을 소환한다. 처음 본 그녀가 누구에게 말하면서 눈을 깜빡이는 모습, 머리를 뒤로 넘



©양지연_렌즈 너머의 숨결

기는 손, 눈 밑에 난 작은 점 따위의 사소한 것들을 바라본 순간, 내 머릿속에선 걱정적인 갈망과 행복, 고통스러운 비극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랑을 상상한다. 그때 스스로 발화한 서로에 대한 끌림은 고요했던 두 사람의 마음을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들판처럼 흔들어 놓았던 적이 있다. 그녀는 속삭였다. “빨강과 파란색이 섞이면 보라색이 되는데...”



©양지연_렌즈 너머의 숨결



©양지연_렌즈 너머의 숨결



©양지연_렌즈 너머의 숨결

잠시 다녀간 그 사랑은 마치 해가 질 녘 창가에 잠깐 머무는 빛처럼 따뜻하지만 붙잡을 수 없었다. 선명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던 그래서 더 애뜻하고 아름답다.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긴다 해도, 빛의 온기까지 담아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종종 시드니 시내 중심가를 찾는다. 그곳에는 사진의 주제나 목적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사진 찍을 소재가 참 많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물결, 다양한 인종, 나무 그늘에 누군가의 연인이 웃고, 창문에서 내려다보는 낯선 고양이의 눈빛,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연인들, 지하철 유리창에 반사된 저녁 하늘, 온기를 잃은 석양을 배경으로 천천히 걷는 노부부.

렌즈를 통해 진짜로 보고 싶은 건 세상이 아니라, 세상 속의 사람들이다. 그들이 있음으로써 완성되는 이야기와 풍경. 결국 남는 것은 그것을 바라본도 나와 그 사람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기억뿐이다. 사진은 시간을 붙잡는 기술이지만, 실은 무엇 하나 붙들 수 있는 건 없다. 찰칵, 셔터가 닫히는 소리와 함께 빛은 프레임 속에 갇히지만, 그 순간의 느낌과 마음의 떨림은 오직 기억에만 남는다.

오랜만에 옛 친구K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너 요즘도 사진 찍냐?"라고 물었다. 나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요즘도 찍긴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 순간



©양지연_렌즈 너머의 숨결



©양지연_렌즈 너머의 숨결



©양지연_렌즈 너머의 숨결



©양지연_렌즈 너머의 숨결

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 같아.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고, 사진이 너무 많아지고 가벼워져서." 전화를 끊고 나서K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앨범 속에서 찾아보았다. 가장자리가 변색한 사진 속 우리는 중학생이었다. 시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남긴 자국들.

주머니 속에는 빠듯한 용돈과, 24방짜리 카메라 필름이 들어 있었다. 셔터 한 번을 누를 때마다 기도하듯 집중했다. 셔터를 누르는 데 호흡을 멈추고 용기가 필요했던 그 낯은 기계. 카메라는 귀했다. 학교에는 문예, 붓글씨, 그림, 합창, 유도 등 특별활동 시간이 있었다. 나는 사진반에 들어갔다. 지도교사는 한 달 넘게 카메라 대신 사진 배우는 책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초점 맞추는 법, 구도 잡는 법, 빛을 다루는 법에 대하여 읽었던 기억이 있다. 결국 친구들은 각자 사진을 찍거나 현상 후 잘잘못을 가려 서로 가르치고 배웠다. 동네 사진관 집 아이가 우리들의 스승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백일이나 돌, 환갑, 결혼, 잔치 전문 사진사였다.

나는 가끔 오래된 앨범을 꺼내어 그 시절 사진들을 바라본다. 공기 빛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세상. 만두 한 접시보다 귀하게 느껴졌던 사진. 그것은 수십 년 전 15살 내가 카메라 프레임을 통해 어떤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지금의 나에게 알려준다. "넌 왜 사람만 그

렇게 많이 찍어 자연이 훨씬 더 아름답잖아."라고 친구들이 물을 때면 나는 "그저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셔터를 눌렀을 뿐이야"라고 대답했다. 지금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사람이 없는 배경이나 자연은 나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 카메라가 포착하는 것은 결국 사람 냄새, 사람 숨결, 사람 이야기다. 렌즈 너머 그 사람이 배경과 겹칠 때, 풍경은 비로소 살아 숨 쉰다.

나는 셔터를 누른다. 누군가의 연인이 웃고, 누군가의 뒷모습이 저물고, 누군가는 처음 만나고 있다. 나는 그 순간들 속에서 나의 보랏빛 시절을 발견한다. 그때 우리는 결국 빨강과 파랑으로 각각 제 갈 길을 갔지만, 오늘 여기 타운홀 계단 위 로맨스가 휩쓸고 지나갔던 자리엔 자카란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보랏빛 기억을 흠뻑리고 있다. 사라졌지만 여전히 곁에 있는 것처럼. 나는 오래도록 착각했다. 사랑은 함께 있어야 완성된다고. 그러나 지금은 안다. 사랑은 함께 있지 않아도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감정은, 끝나서야 비로소 그 깊이를 알 수 있다. 오래된 사진처럼.

그리고 나는 문득, 사랑도 사진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함께했던 순간들은 사랑이 끝난 그 자리에서 조용히 빛을 남긴다. 연보랏빛 자카란다 꽃잎처럼.

설산과 호수따라 4인의 여정 키르기스스탄

이운재(경기광주) 김범순(수원) 김승철(부천) 이범성(의정부)

산을 돌아
내가 흘러가 닿을 곳을 더듬으며
태고의 산과 들을 지나
아득한 이야기 속으로
나는 잠시 나를 내려놓는다.

새로이 숨 쉬고 싶어
눈에 고운 것만 담아보려 했으나
세상은 늘
마음보다 한 걸음 비껴가
아픔은 그림자처럼 남아
쉽게 떼어지지 않는다.

미련을 품고 우는 두견새 곁에서
말없이 귀를 기울이면
울음은 새의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내 안에서 흘러나와
산자락을 적신다.

아름다움을 내뿜는 산 위에 서서
몸과 마음에 쌓인 먼지를 털어
설산 호수의 차가운 숨결에
오래 묵은 마음을 씻기고
잠시, 아주 잠시
고요 속에 나를 맡기고 싶다.



©김범순_아라콜팩스



©김승철_무스타그봉 강가

사람 발길이 뜸한 곳에서는 사람도 자연이 된다.
하늘과 맞닿은 설봉 흰 빛이 호수에 비치는 태초의 풍광을 흐뜨리고 어지럽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그 곳을 지나는 우리도 초원에 부는 바람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운재_알타이라산 계곡



©김승철_카라클 호수



©김범순_양들의 침묵



©이범성_키르기스스탄 붉은산



©이범성_레닌산의 은하수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에 전시를 직접 관람 후 미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와 기념촬영을 하는 전시작가들과 현대사진연구회 회원들



세상 끝을 바람처럼 다니다가 돌아와 남긴 것은 키르기스스탄의 풍광들이다.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을 통해 4인의 작가의 시선으로 본 때묻지 않는 자연을 전시했다. 전시회를 찾은 미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사진박물관 전시 관람객

카메라 두고 떠난 여행 II 베를린, 길 위의 노트

유 병 용(서울)

#7

내 허접한 잡기에 어떤 폐친분이 댓글로 관광과 여행의 차이를 언급해 주었다. 이번의 내 경우는 여행일까 관광일까? 어떨든 나는 즐거운 몸과 마음으로 여기저기 둘러본다. 오늘은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서 베를린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사진쟁이로서 엄청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GROPIUS BAU에서 열리고 있는 DIANE ARBUS 사진전에서 오리지널 흑백 프린트 작품 455점을 감상하는 호강을 누렸다. 눈에 익은 작품들이 반가웠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작품을 만날 수 있어 행복했다. 전시장 곳곳에서 토론하며 감상하는 많은 관람객의 진지한 모습도 참 인

상적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동물원역 뒤편에 있는 HELMUT NEWTON 재단이 운영하는 사진박물관의 DIALOGUES 전에서는 전설적인 사진가 HELMUT NEWTON의 작품을 비롯해 당대의 대가들 작품과 '리코 폴만'의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패션 사진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특히 전시 방법이 많은 걸 생각해 해준다. '벽의 표정'을 마무리할 때 참고할 것을 머릿속에 담아 둔다. 베를린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둘러보고 싶다.

이 맛에 여행한다. 여행은 마음을 살피게 해준다.



HELMUT NEWTON 재단 사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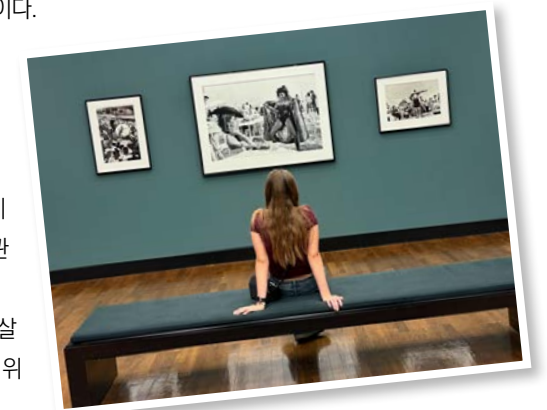
HELMUT NEWTON의 Polaroids



GROPIUS BAU 1층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8

오늘 새벽 썸머타임이 해제되어 1시간을 덤으로 얻었다. 여행객이 황재한 기분이다. 가을이 물러나고 베를린의 기온이 겨울이다. 체감온도 영도를 오르내리며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린다. 이 상황에 카메라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전철을 타고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를 방문했다. 슈프레강 변의 베를린 장벽 1.3km에 세계 21개국 작가 118명이 벽화를 그려 넣어 유명해진 곳이다. 특히 '드미트리 브루델'이 그린 '형제의 키스'는 소련과 동독의 서기장이었던 '브레즈네프'와 '호네커'가 입 맞추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이 그림 앞에 인증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로 엄청나게 붐빈다. 나도 그냥 갈 수는 없어 증명사진 한 장 남겼다. 전철을 타고 오가며 많은 생각을 한다. 여행은 늘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살아온 날을 되돌아보면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스러운 일 참 많다. 아름다운 소멸을 위해 많은 이들에게 더 늦기 전에 용서를 빌어야 한다. 비가 그치고 아스팔트 위에 비에 젖은 낙엽이 수북하다.



사진박물관 전시 관람객



East Side Gallery 모습



East Side Gallery 거리 악사

Yolanda 청동조각품
/ 베를린 Nachodstrasse 거리

여행은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카메라 없이 떠난 이번 유럽 여행에서 느낀 점은 진정한 '쟁이'라면
삶과 작품 모두에서 유치한 맛을 부리지 말아야한다는 것이었다.



GROPIUS BAU/DIANE ARBUS 사진전 모습



DIANE ARBUS [이란성 쌍둥이] 작품과 관람객

#9

2주간의 여행 일정이 끝나간다. 내일 아침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인천행 비행기에 오른다. 오래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과 함께 지낸 시간이 소중하고 행복했다.
옛날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떠날 때부터 귀국 선물 걱정을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귀국 선물 걱정은 하지 않는 세태다. 사실 우리 제품이 워낙 다양하고 품질이 월등하니 딱히 외국에서 사야 할 물건도 마땅치 않다. 주변 사람들도 누가 외국 갔다 온다고 선물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아니어서 맘 편하다.
수십 년 서울 살면서 아직도 가보지 못한 명소들이 부지기수다. 하물며 겨우 며칠 다른 나라 도시에 머물며 모든 곳을 다 보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취향에 맞는 곳 몇 군데 골라 깊이 있게 관람하는 게 정답 아닐까 싶다. 동서독의 장벽이 허물어진 베를린, 이 넓은 도시를 어찌 다 둘러볼 수 있겠는가. 추적추적 비 내리는 오후에 슈프레강 변 베를린동과 알렉산더광장 주변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는 것으로 베를린 여행을 마무리한다.
이번 여행에서 느낀 게 많다. 특히 진정한 쟁이는 삶과 작품에 어쭙잡은 잔머리를 굴리거나 유치한 맛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쟁이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드미트리 브루델 작품 [형제의 키스]



전시전경 - 갤러리제공



전시전경 - 갤러리제공

제국의 수도에서 글로벌 메가시티로 Tokyo Before/After

글·사진제공 - 김재훈(전시 컨설턴트, 프린트 디렉터)

경북대학교미술관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국제교류기금과 공동으로 〈Tokyo Before / After〉 전시를 2026년 1월 17일(토)까지 진행하고 있다. 전시에서는 1930~40년대의 도쿄와 2010년 이후의 도쿄, 두 시기를 기록한 사진가 9명의 작품 81점을 대조 설치하여 시대의 흐름을 중심으로 비교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관동대지진과 제국주의 전쟁의 광풍이 거처가는 시기에 대도시의 형태를 갖추어 거듭나는 도쿄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전통과 모던이 공존하며 활기 넘치는 도시공간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던 사진가들의 시선과 2010년 이후 구조적 문제와 사회문화적 변화를 받아들이며 개선된 도시 인프라와 환경등 도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일본 사진계를 대표하는 사진가들이 다양화된 사진 표현방식으로 조망하고 있다.

전시는 두 시기를 나누어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1930~40년대

〉에서는 1930년대 초반 창간된 사진잡지 '고가(Koga, 光岡)'와 '닛폰(NIPPON, 日本)'에 게재된 사진들, 그리고 '구와바라 키네오(桑原甲子雄)' 작가의 도심 스냅샷을 통해 전통문화와 근대생활이 교차하던 당시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고가'는 유수의 사진가, 평론가들이 참여한 사진잡지로 2년여간의 기간동안 18권만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퀄리티와 수준높은 내용으로 기존의 회화주의 사진 경향에서 벗어나 사진의 객관성과 새로운 사진기술을 추구하며 독자적인 사진 표현을 지향한 '신흥사진'운동을 전개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진잡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닛폰'은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전신인 국제문화진흥회가 제작한 사진첩으로 일본의 전통문화와 자연 근대 도시의 환경 등을 담아 일본의 모습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는데 일반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 포토몽타주 기법을 활용한 아코디언식 구성이 특징이다. 2부 '2010년대 이후'에서는 '모리야마 다이도(森山大道)', '아라키 노부요시(荒木経惟)', '니나가와 미카(蜷川実花)', '하

야시 나츠미(林ナツミ)', '고바야시 켄타(小林健太)' 등 8명의 사진 및 영상 작품을 선보인다. 2부의 내용은 이 전시의 기획자이자 사진평론가인 이이자와 코타로의 글에 심도있게 설명되어 있기에 일부를 발췌해서 안내한다.

'2부에서 소개하는 것은 아라키 노부요시, 모리야마 다이도, 니나가와 미카, 사토 신타로, 아리모토 신야, 하야시 나츠미, 다이후 모토유키, 고바야시 켄타의 사진이다. 이들은 세대도 작품도 상당히 다르지만, 각각 도쿄를 큰 테마로 하여 작품을 발표해왔다. 아라키 노부요시는 오늘날 국제적으로 가장 지명도가 높은 일본인 사진가 중 한 명일 것이다. 에로스를 전면에 내세운 그의 사진은, 세계 각지에서 전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간행된 사진집의 수만 500권에 육박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라키 스스로가 태어나고 자란 도쿄에 내재된 죽음의 기운(타나토스)에도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 이번에 전시되는 「Tombeau Tokyo」

(2016년) 시리즈는 그야말로 그 계보를 잇는 것으로, 도쿄를 「무덤」으로 보는 발상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아라키 노부요시와 함께 1960년대 이후의 일본 사진 표현을 견인해 온 인물이 모리야마 다이도이다. 그는 거리를 배회하면서 온몸을 안테나로 삼아 촬영하는 스타일을 철저히 고수해왔다. 2015년에 간행된 사진집 『개와 망사 스타킹』에서 그의 수법은 세련됨의 극치에 이르렀고, 다양한 사물이 엮어 만드는 질감의 집합체로서의 도쿄를 포착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개와 망사 스타킹』에 수록된 모든 이미지를 벽지 패턴처럼 재구축하는 인스탈레이션이 시도된다.

아라키와 모리야마의 뒤를 잇는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 니나가와 미카이다. 1990년대에 일제히 등장한 여성 사진가들 중에서도 그녀의 인기는 단연 두드러진다. 상업사진부터 자화상까지 폭넓은 작품을 계속해서 발표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도쿄에서 몸부림치는 기



고가(Koga) 수록사진



©하야시 나츠미(林ナツミ) 〈오늘의 부유 02/21/2011(Today's Levitation 02/21/2011)〉, 2011, Ink-jet Print, 24×36cm ©Natsumi Hayashi



©아라키 노부요시(荒木経惟) 〈도쿄 무덤(Tokyo Tombeau)〉, 2016/2017, Gelatin silver print, 22.2×28.1cm ©Nobuyoshi Araki / Courtesy of Taka Ishii Gallery



©아리모토 신야(有元伸也) 〈도쿄 서클레이션(Tokyo Circulation)〉, 2016, Gelatin silver print, 40.6×50.8cm ©Shinya Arimoto



©사토 신타로(佐藤信太郎) 〈도쿄 스카이 트리(Risen in the East)〉, 다이토구 아사쿠사(Asakusa, Taito Ward), April 10, 2011, Digital Pigment Print, 37.1×101.9cm ©SATO Shintaro, Courtesy of PGI



닛폰(NIPPON) 수록사진

괴한 인물들에 초점을 맞춘 「Tokyo Innocence」(2013년) 시리즈에 주목하였다. 남성과 여성, 인공과 자연, 허구와 현실의 경계선 위를 오가는 모델들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의 '오타쿠' 이미지를 인용하여, 활인화(tableau vivant, 살아 있는 사람이 분장하여 정지된 모습으로 명화나 역사적 장면 등을 연출하는 것)를 연상시키는 사진으로 포착하고 있다. 거의 같은 세대인 사토 신타로와 아리모토 신야는 각각 독특한 각도에서 도쿄를 테마로 작품을 발표해왔다. 사토의 「도쿄 스카이 트리(Risen in the East)」(2011년)는 2012년에 완성된 도쿄도 스미다구의 전파탑인 도쿄 스카이 트리의 건설 과정을 따라가며 사진으로 담은 작품이다. 634미터나 되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의 등장은, 전통적인 풍경이 남아있던 도쿄 속 구 시가지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사토는 화면을 가로로 연결하는 파노라마 사진 기법을 구사함으로써, 도쿄라는 도시의 기억을 스카이트리를 기점으로 재편성하고

자 하였다. 아리모토 신야는 2006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ariphoto」라는 이름의 시리즈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위험하고 수상한 장소로 알려져 있는 신주쿠 가부키초 부근을 중심으로 촬영한 스냅샷과 인물사진 시리즈이다. 이 사진들은 2016년에 사진집 『TOKYO CIRCULATION』으로 출간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거리의 사람들의 강렬한 존재감이, 치밀하고 깊이 있는 흑백사진 속에 포착되어 있다.

하야시 나츠미는 2011년 1월 1일부터 자신의 웹사이트에 「오늘의 부유(浮遊)」라는 제목의 작품을 일기 형식으로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장소에서 점프하는 소녀의 모습을 마치 공중에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포착한 시리즈였다. 「오늘의 부유」는 일본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어, 2012년에는 사진집으로도 간행된다. 정확한 포즈를 얻기 위해 때로는 100~200번씩 점프하는 등, 말 그대로 몸 전체



©니나가와 미카(蜷川実花) 〈도쿄 이노센스(Tokyo Innocence)〉, 2015, C-print mounted on plexiglas, 68.6×51.5cm ©mika ninagawa



©고바야시 켄타(小林健太) 〈무제 #스머지 #비디오(Untitled, #smudge #video)〉, 2016, Video (C)Kenta Kobayashi, Courtesy of G/P GALLERY

를 쓰는 행위가 계속됨으로써, 익숙하던 도쿄의 풍경이, 기적과도 같은 반짝임을 갖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다이후 모토유키와 고바야시 켄타는 보다 젊은 세대의 사진가들이다. 다이후는 자기 가족의 일상을 가까운 거리에서 생생하게 촬영한 「Project Family」(2013년)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출품한 「Still Life」(2014년)에서는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는 컬러풀하고 키치한 식품이나 도구류 등을 위에서 스캔하듯 촬영하여, 마치 복잡한 도쿄의 축소판처럼 보이게 하였다. 1992년생인 고바야시 켄타에게 현실세계는 움직이기 힘든 단단한 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라, 표층적이고 변화 가능한 이미지에 의해 조립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닐까. 포토샵으로 가공하거나, 비디오 작품으로 재편집한 이미지는, 그가 피부 감각으로 포착한 도쿄의 단편이자 처음부터 디지털 툴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신세대 「사진가」의 출현을 생생하게 알리고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불리는 일본의 문화는 음으로건 양으로건 우리나라의 문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왔으며 사진계역시 많은 교류와 관련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속에서 두 나라의 사진은 각자의 길을 걸어왔으며 다른 사조와 시선으로 고유의 감성들을 표현해 왔다. 일본 유수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서 국내에서 보기 힘들었던 전혀 다른 형태의 작업들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이며, 우리나라 사진계의 역사와 다르게 진행되어 온 부분과 사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단순한 전시관람 이상의 무언가를 얻게 될 것이다.



별첨한 사진의
지인적하다

SINJI
studioclub

(주)신지스튜디오클럽
사진가를 위한 패셔너블 인증제 소팅몰

포토프린터
EPSON Canon
EXCEED YOUR VISION
마니, 배터리 휴대용, A4무한장문, A4포토복합기
A3 전문가용 포토프린터, A2 ~ 64인치 대형

포토테이퍼, 정품잉크
EPSON Canon SINJI
EXCEED YOUR VISION
대여 프로그램
복제, 복사, 무상대여 / 02)790-1310

실적



한국사진작가협회 지점 우수업체



한국 스튜디오 1,000여 개점중



한국 예술작가 1,000여명과 협업

아우라에서 데이터로, 르네상스에서 현대까지 사진이 걸어온 길 I

글, 사진제공_조주은(경희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 교수, 사진예술대학 주임교수)



카메라 옵스큐라 원리를 이용한 사이너의 헬리오스코프



제임스 에이스코프가 1755년에 쓴 [눈과 시각의 본질에 대한 간략한 설명] (A short account of the eye and nature of vision)에서 설명한 카메라 옵스큐라 원리 (이미지 출처, Wikimedia)



이븐 알하이삼(알하젠)의 카메라 옵스큐라를 재현한 AI 이미지

사진의 역사는 매체의 변화를 따라 감정의 언어를 바꾸어 왔다. 빛이 이미지를 남기는 방식이 달라질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바와 그 느낌을 전하는 문법도 함께 이동했다. 각 시대의 예술은 사진의 표현을 북극성처럼 앞에서 이끌었고, 사진은 다시 예술과 대중문화의 감수성을 미세 조정했다. 회화가 설계한 원근과 명암, 조각이 가르친 신체의 균형, 무대와 「기계 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아우라, 지각의 변화, 광학적 무의식 등의

개념으로 사진·영화의 ‘보는 법’을 설명한 발터 벤야민이 다듬은 시선의 규칙은 사진 속에서 새로운 속도로 재배치되었다. 감정은 대상의 속성이 아니라 형식의 결과라는 사실이, 시대를 건너며 확인된다. <르네상스부터 현대까지 사진을 말하다-아우라에서 데이터로>는 르네상스에서 동시대까지 이어지는 “사진”의 계보를 예술과 과학, 사회현상과 예술 관계의 문법으로 읽어 보려 한다.



홀바인 <대사들>, 오크 패널에 유채, 207x209.5cm, 1533년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 그림을 그리는데 카메라 옵스큐라의 도움을 받았을 걸로 추정된다



베르메르 <우유를 따르는 여인> 1658~1659, 캔버스 유채, 45.5x40.6cm,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암스테르담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하여 그린 것으로 추정한다.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형상의 왜곡이 발생되어 바구니 등이 찌그러져 있으며 각 부위마다 초점이 맞은 표현이 다르다. 초점의 불균일하여 동그라미 부분은 초점이 맞지 않고 있다.

카메라의 시작-핀홀 카메라

핀홀을 실험한 화가들의 방은 과학과 예술이 만난 시도였으며 작은 구멍을 통해 환영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재현하고 고착시키려는 시도는 사진의 탄생을 예비했다. 이미지만을 볼 수 있어 그림의 밑그림으로 사용 되었던 핀홀과 카메라 옵스큐라는 대상을 고정시키는 필름과 인화로 발전되었으며, 그렇게 탄생된 사진의 발전은 움직임을 기록하기 위하여 여러 장의 사진으로 보여주는 동체사진으로 이어졌고, 동체 사진의 연결은 영화의 발전으로 확장되었다.

아우라: 물성과 증언의 Emotion

이 여정에는 오늘의 카메라만 있지 않다. 가장 기본적인 카메라 원리를 구현한 어두운 방의 작은 구멍에서 시작한 핀홀과 카메라 옵스큐라는 빛의 길을 보여 주며 ‘보는 법’을 훈련시켰다. 카메라 옵스큐라의 원리에 대한 기술은 11세기 초 이븐 알하이삼(알하젠)의 『시각론』에 체계화되어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4세기경 일식 관찰에서 핀홀 투영을 언급했다. 중국의 목자 또한 상이 거꾸로 맺히는 현상을 설명했다.



<칠실파려안>을 통해 보이는 AI 이미지



유언호 초상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이명기(李命基)가 1787년 그린 ‘유언호 초상화(보물 제1504호)’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해 묘사한 초상화



아프로디테(밀로의 비너스, Venus de Milo)
석상 뒷모습



아프로디테(밀로의 비너스, Venus de Milo)
형식적 특징: 전형적 콘트라포스토, 체중은 오른 다리, 왼다리 굴곡, 골반과 어깨의 역기울기, S-커즈, 엉덩이와 허리에 두른 히마티온의 주름이 리듬과 시선 흐름 형성



콘트라포스토 AI 이미지



아프로디테(밀로의 비너스, Venus de Milo) 루브루 박물관에서 전시 모습
Joseph Warlencourt (1824~1830)

르네상스에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카메라 옵스큐라의 작동 원리를 스캐치하고 원근법 연구에 활용했으며, 『코덱스 아틀란티쿠스』에는 그 장치와 미술적 응용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홀바인의 「대사들」, 베르메르의 「우유를 따르는 여인」 등에서는 카메라 옵스큐라에 사용된 렌즈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부에 왜곡이 심하게 생기고, 초점의 불균일하며, 광채 효과 등 카메라 옵스큐라 사용을 시사하는 징후가 관찰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조선 후기에도 이 원리는 창작의 장치로 추정된다. 카메라 옵스큐라를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기법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1780년대에 이미 도입되어 초상화 제작에 활용되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이며 시인이자 과학자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저술을 총정리한 문집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는 카메라 옵스큐라를 "칠실파려안(漆室玻瓈眼)"이라고 부르고, "칠실관화설(漆室觀火說)"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 원리를 실험하고 연구한 기록이 있다.

화산관 이명기가 1787년에 그린 「유언호 초상」(보물 제1504호)은 정밀한 광학적 관찰을 바탕으로 한 묘사가 돋보이며, 정약용의 연구 기록

과 연동해 카메라 옵스큐라의 활용 가능성을 논증한 미술사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 과학과 예술의 접합을 보여 주는 사례로서 세계 과학사와 미술사에 의미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현실을 빠르고 정확하게 재현하려는 욕망은 시대와 지역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 옵스큐라를 낳았다. 사진의 씨앗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진이 매체로 성립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빛의 방향과 크기, 표면의 재질, 신체의 균형에서 정서를 읽고 그것을 형식으로 번역한다. 아우라는 물성의 흔적이자 증언의 정서다. 오늘날 데이터가 감정의 유통을 계산하고 가속하더라도, 그 감정은 여전히 형식 속에서 만들어진다. 사진은 그 형식을 통해 마음을 조직한다.

초상사진의 기초-콘트라포스토 포즈와 램브란트 라이팅

고전적 포즈인 콘트라포스토는 모델의 축을 비틀어 균형과 긴장을 만든다.

한쪽 발은 살포시 구부린 채 내밀고, 허리를 살짝 비튼다. 내민 다리 쪽

의 팔은 허리에 올려서 몸의 공간감을 극대화 시킨다. 그럼으로써 몸은 S자 형태가 만들어지며, 가장 풍만하고 입체적인 곡선미를 만들어낸다. 이 원리는 현재에도 유효해 인물 사진과 패션 이미지에서 미감을 극대화하는 기본 문법으로 작동하며, SNS의 범람 속에서 일반인의 포즈 규범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초상화의 달인 램브란트가 남긴 ‘램브란트 라이팅’ 역시 명암 대비의 어휘를 통해 얼굴의 볼륨과 감정을 설계했고, 오늘의 초상사진은 그 형식을 다른 표현 양식으로 계승한다. 19세기 인상파는 사진의 등장과 함께 즉각성·프레임·빛의 순간성에 대한 감수성을 회화적으로 변주했고, 이는 현대미술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램브란트 라이트는 얼굴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조각하듯 드러내는 인물 조명이다.

램브란트 라이트는 얼굴을 평면이 아니라 부피로 보게 만드는 규율이다. 빛은 정면에서 닿지 않고 카메라 기준 가로 45°, 세로 45° 위에서 들어와 코 그림자와 볼 그림자를 하나의 어둠 면으로 연결한다. 이때 빛의 반대편 뺨, 눈 아래에 작은 삼각형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연결은 얼굴의 볼륨과 윤곽을 또렷하게 하여 안정적인 인상과 자연스러운 피부 질감을 만든다. 배경은 주로 중·암부로 처리해 인물과의 분리감을 확보한다. 쇼트 세팅(카메라에서 멀어진 쪽 볼을 밝힘)은 얼굴을 슬림하게 보이게 하고, 브로드 세팅은 보다 개방적인 인상을 준다. 이 방식은 회화의 키아로스쿠로 전통에서 비롯되어 고전과 현대 인물사진 모두에서 표준으로 쓰인다.

이 조명의 미덕은 과시가 아니라 절제에 있다. 한쪽 눈에 남는 단일 캐치라이트가 시선



콘트라포스토 AI 이미지



〈램브란트 라이트의 AI 이미지〉 현대의 인물 사진, 광고 사진에서도 램브란트 라이트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다.

의 진입점을 정리하고, 간결한 연출 속에서 깊이와 위엄을 확보한다. 결과적으로 램브란트 라이트는 그림을 그리는 도구보다 빛의 방향과 각도, 거리를 정밀하게 다루는 선택의 기술이다.

르네상스부터 현대까지 예술과 사진의 연관성을 고찰하고자하는 목적은 각 시대가 감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유통했는지, 그 설계가 오늘 우리의 시선과 어떤 합을 이루는지 점검하는 일에 있다. 결국 사진은 대상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형식이다. 매체가 교체되어도,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규칙과 속도, 표면과 습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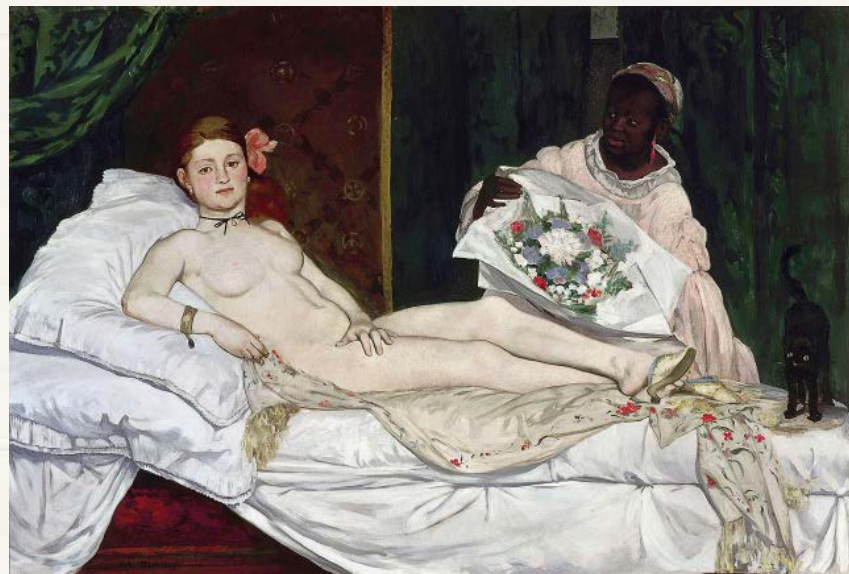
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Portrait of Marten Soolmans, 1634, Oil on canvas, 210x135cm, Rothschild Collection, Paris



AI 광고이미지

설명하지 않는다 질문만 남긴다 명작의 조건

글 사진제공_최승언



마네 올랭피아

어떻게하면 위대한 예술가가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명갤러리에 영구 전시되는 명작을 만들수 있을까? 첫 전시부터 저항을 불렀고 그 저항을 천사로 바꾼 예술 작품들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명작’이라 하는 작품들 가운데 상당수는, 탄생 당시 스캔들이었고 문제작이었다.

공개되는 순간 거부감과 분노를 불렀다. 관객은 불편해했고, 사회는 모욕당했다고 느꼈으며, 법과 제도는 이를 통제하려 했던 명작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분노는 왜라는 질문으로 대치되었고, 그 질문은 사람들을 사유의 장으로 인도하여 세상의 시각을 바꾸었다.

마네가 그린 누드 작품 <올랭피아>도 관객을 도발함으로 명작의 반열에 오른 예이다.

19세기 파리 살롱의 누드들은 대부분 신화와 알레고리의 이름을 달고 있었다. 실제로는 그시대 여성의 몸을 그리면서도 비너스나 요정으로 포장했다. 피부는 대리석처럼 매끈했고, 체모는 지워졌으며, 시선은 관객을 피했다. 몸은 노출되었지만 인격은 삭제된 채, 욕망은 허용되고 책임은 면제되는 안전한 감상의 대상이었다.

마네는 이 집단적 자기기만을 거부했다. 그는 현실의 여체를 현실의 시선 속에 세웠다. 그래서 관객이 숨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올랭피아>는 스캔들이 되었다.



뒤샹의 작품 샘 (fountain)

<올랭피아>가 1865년 전시되었을 때 당시 관객들은 그림 앞에서 야유했고, 일부는 우산으로 캔버스를 찌르려 했을 정도였다. 이런 반응은 “왜 우리는 신화 속 몸은 고상하다 말하고, 현실의 몸은 추하다 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올랭피아의 가치는 시선의 전환에서 확인된다. 회화가 대상을 미화하는 창이 아니라, 관객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고야의 <1808년 5월 3일>은 나폴레옹 군대가 마드리드 시민을 학살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그린 작품이다.

고야는 궁정화가였고, 권력의 보호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 그림에서 그는 국가나 군대를 미화하지 않았다. 얼굴 없는 총구는 ‘책임지지 않는 권력’을 상징하고, 흰 셔츠의 남자는 종교적 순교자 같은데 철저히 이름 없는 시민이다. 당시 이 그림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한동안 전시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전쟁을 그리는 방식 자체를 바꾼 그림”으로 평가받는다. 전쟁을 설명하지 않고 고발했다는 점, 또 관객이 도덕적 판단을 회피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뒤샹의 <샘>도 유명한 에피소드를 간직하고 있다.

1917년 뉴욕 독립미술가협회전에 ‘R. Mutt’라는 가명으로 출품된 작품은 남성용 소변기를 전시한 것이었다. ‘남성용

소변기 모양의 조형물엔 리처드 머트(R. Mutt)’란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뒤샹이 상점에서 직접 변기를 구매해 ‘리처드 머트’라는 서명만 남긴 것이다. 이 기이한 작품은 “이것이 왜 예술이 아닌가”, “무엇이 예술을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전시장 한가운데 던졌다. 작품은 만든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이었고, 작가의 기술이 아니라 작가의 결정이 전면에 놓였다. 이 순간 예술은 물질적 대상에서 벗어나, 개념과 판단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샘은 애초 심사 없는 전시를 표방했기 때문에 규정상 거절될 수 없었다.

그러나 협회는 이를 숨겼고, 사실상 검열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뒤샹의 의도대로였다. 예술이 당시 제도와 권위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회적 반향은 격렬했고, “예술의 죽음”이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뒤샹의 작품은 관객을 왜라는 질문으로 끌어들었다. 샘은 질문 자체가 작품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예술이 감상의 대상에서 사고의 계기로 이동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드바르 몽크의 절규는 두려움을 형상화했기에 끌리는 명작이다. 이 작품이 강렬한 이유는 무서운 대상을 보여주지 않고, 두려워하는 인물을 시각화했다는 데 있다. 화면 속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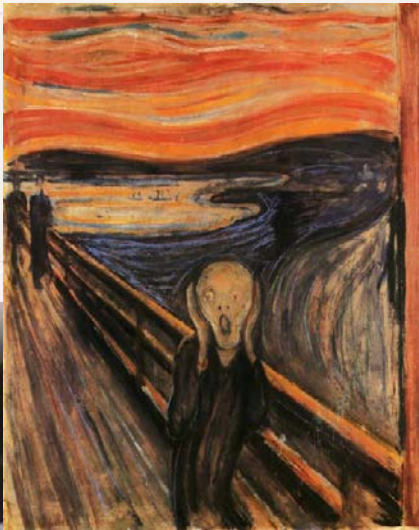


피카소의 게르니카

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듯한 얼굴로 입을 벌리고 있지만, 위협하는 대상은 화면에 없다. 뒤틀린 하늘과 흔들리는 다리는 외부 세계가 아니라, 인물의 내면이 외부로 투사된 풍경으로 그려졌다.

몽크는 일기에서 “자연을 가로지르는 끝없는 절규를 들었다”고 기록했다. 이는 실제 사건이라기보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대한 느낌이었다. 산업화와 근대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시대, 개인은 종교와 공동체의 보호를 잃고 홀로 세계와 마주해야 했다. <절규>는 바로 그 고립의 순간을 붙잡은 이미지다.

이 작품은 처음 공개되었을 때 불쾌하고 병적인 그림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절규>는 현대인의 불안을 가장 보편적으로 형상화한 이미지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다. 관객은 그림 속 인물의 감정을 이해한다기보다, 그 감정이 이미 자기 안에 있음을 알아본다. 그래서 <절규>는 설명되지 않아도 시대를 넘어 작동하는, 감정의 아이콘으로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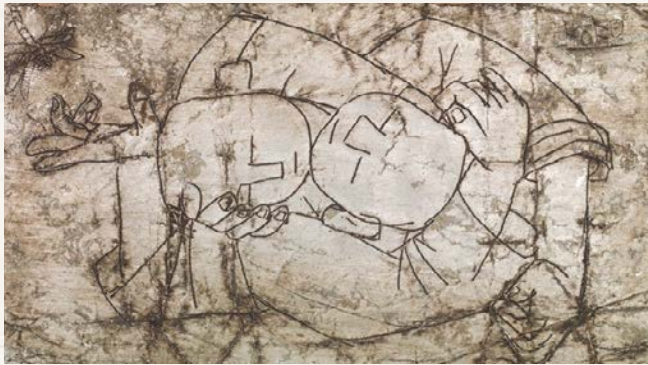


에드바르 몽크의 절규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정치적 분노에서 시작되었다. 1937년 스페인 내전 중 작은 도시 게르니카가 무차별 폭격을 당하자, 피카소는 파리 만국박람회 스페인관을 위해 준비하던 작업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그는 폭격 장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지 않았다. 대신 부서진 몸, 찢어진 말, 비명 지르는 얼굴을 통해 혼란 그 자체를 그렸다. 일부 스페인 사람들은 “조국을 추하게 묘사했다”며 분노했지만, 이 작품은 곧 전 세계를 순회하며 반전의 상징이 되었다. 나치 장교가 피카소에게 “이 그림을 그린 게 당신이오?”라고 묻자 “아니오, 당신들이오”라고 답했다는 일화는 이 작품의 성격을 정확히 보여준다. <게르니카>의 가치는 미적 완성도보다 폭력을 고발하는 형식 자체에 있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고통스럽고도 순수한 예술혼을 지닌 화가로 평가받는 이중섭. 그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온 몸으로 체험하며 그림을 그렸다.

대표작인 <황소>는 그의 예술적 상징으로 자주 언급된다. 힘줄



가족을 그린 이중섭 작품



이중섭 작품 황소



이중섭 작품 흰소

이 드러난 소의 모습은 시대의 압력 속에서도 꺾이지 않으려는 작가 자신의 분신이다. 이 소는 승리의 상징이라기보다는 버티는 존재이며, 한국전쟁 이후 폐허 속 민중의 삶과도 오버랩 된다. 또 다른 중요한 연작인 가족 그림에서는 아내와 두 아들을 향한 절절한 애정이 드러난다. 그는 전쟁으로 가족과 생이 별한 뒤, 편지와 그림으로만 가족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그리움은 화면 속 인물들의 과장된 눈과 단순한 선으로 표현되었다.

그의 작품에는 영웅도 이념도 없다. 대신 한 인간이 견뎌야 했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남아 있을 뿐이다. 이중섭의 그림은 시대를 설명하지 않는다. 역사적 사건을 거대 담론으로 그리지도 않았다. 다만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로 기록했다. 이는 한국 미술에서 개인의 고통을 정면에 놓은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이들 작품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작가들은 관객을 기분 좋게 만들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관객을 도발했고, 사회는 분노로 반응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질문으로 남았고, 질문은 시간이 지나 사유가 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술적 가치는 확인된다.

예술의 가치는 처음의 환호에 있지 않다. 끝까지 질문하게 만드는 데 있다. 관객을 도발하고, 곰곰이 생각하게 만든 작품만이 시대를 넘어 살아남는다. 예술작품은 많았지만, 분노를 사유로 바꾼 예술만이 역사로 남았다.

제7회 서울특별시지회 회원전 서울특별시 23개구 사진작가들의 향연

글 사진_김의배(홍보위원회 위원장) 사진_오건호(보도사진분과위원회 부위원장, 홍보위원회 사무국장)



제7회 서울특별시지회 회원전에 참석한 내빈과 회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12월 16일(화) 오전11시, 서울시 영등포구 영종로 15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있는 구립영등포아트스퀘어 지하2층에 있는 전시장에서 제7회 서울특별시지회 회원전이 열렸다. 서울특별시 23개 구 지부 작품 총 127점을 전시하여 서울지회 박국인 사무국장(강서구 지부장)의 진행으로 개최했다. 백만중 서울특별시지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국민의례를 했다. 먼저 백만중 지회장이 내빈을 소개했다. 유수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최차열 부이사장, 정재문 경기도지회장, 최임순, 이성록, 김부연, 이연숙, 신경애, 박석관 이사, 문제민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이이규, 김관식 자문위원, 강동구 조동휘, 강서구 박국인, 관악구 임남석, 광진구 김화연, 구로구 이근숙, 금천구 이권희, 노원구 김승호, 도봉구 이천우, 동대문구 안성숙, 마포구 김정금, 서대문구 차석철, 서초구 김영호, 송파구 한서정, 양천구 이종수, 영등포구 정창완, 용산구 김상수, 은평구 김성겸, 종로구 임천수, 중구 한낙영, 중랑구 황봉연 지부장, 이경희 수석 부지회장, 임병훈, 정종은, 김상수, 정상규 부지회장, 김원기, 황수현 감사, 박국인 사무국장, 최연근 재무간사, 추민지 총무간사, 윤명자, 오건호, 정금미 간사 등이 호명되었다.



축사를 하는 유수찬 이사장



개회사를 하는 백만중 서울특별시지회장(부이사장)

백만중 서울특별시지회장은 인사말에서 “훌륭한 작품을 출품해 주신 작가님들께 감사와 축하드리고, 오늘 수상자님께 축하합니다. 지난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에 많은 분이 ‘서울의 풍경’ 타이틀로 서울특별부스전에 참여하고, 특히 서울의 풍경은 매우 인기가 많았어요. 서울 시민들이 부스로 찾아와서 ‘우리 서울특별시구 부스가 어디 있냐?’며 관심 있게 찾아보고 감탄하는 걸 봤어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알차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찬 이사장님께서 5년 여의 형설지공을 쌓아서 지난달에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유수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이 축사했다. “제7회 서울특별시지회 회원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진의 꽃은 전시로써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만족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시가 소외되고 호응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전시장 찾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소위 아카데미라든가 우리 협회에 여러 가지 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교육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부하십사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쾌감도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걸 내년에는 주요 목표로 삼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양천구지부가 우수지부로 선정되어 백만중(왼쪽) 지회장으로부터 지부기에 우수지부 리본을 지부기에 달고 이종수 지부장(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지부 임원들이 서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재문 경기도지회장이 축사했다. “오늘 제7회 서울특별시지회 회원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전시회를 준비해 주신 백만중 지회장님을 비롯하여 유수찬 이사장님, 최차열 부이사장님, 문제민 교육위원장님, 서울지회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드립니다. 수상자들에게도 축하드립니다. 오늘 잘 보고 잘된 점을 경기도에도 접목해서 더 발전하는 사진작가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수찬 이사장이 이경희 수석 부지회장, 정창완 영등포구 지부장, 김성겸 은평구 지부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백만중 서울특별시지회 지회장이 박석관, 윤명자 작가에게 초대작가증서를, 정인식 작가에게 추천작가증서를 수여했다. 백만중 서울특별시지회 지회장이 김원기(광진구 지부), 박영임(양천구지부), 홍순간(송파구지부) 회원에게 우수작품상을 수여했다. 백만중 지회장이 정금미(서울특별시지회), 이권희(금천구지부) 회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백만중 서울특별시지회장이 박흥용(강북구지부), 채광련(강서구지부), 이남숙(관악구지부), 김태민(광진구지부), 윤주홍(구로구지부), 정정근(금천구지부), 고기영(노원구지부), 모승원(도봉구지부), 김운종(동대문구지부), 강금용(동작구지부), 김숙자(마포구지부), 김주식(서대문구지부), 최정희(서초구지부), 이유성(송파구지부), 이자원(양천구지부), 이연

옥(영등포구지부), 전민정(용산구지부), 박봉재(은평구지부), 백기수(종로구지부), 차정순(중구지부), 김인만(중랑구지부) 회원에게 지부별 우수작품상을 수여했다.

동대문구지부, 동작구지부, 양천구지부에 우수지부상을 수여하여 우수지부 리본을 지부기에 달아주고 지부장은 지부기를 흔들어 보이며 기뻐했다. 제7회 서울특별시지회 회원전에 참석한 내빈과 회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오후 1시경에 행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오찬을 하며 정담을 나눴다. 이 전시는 18일(목) 오후 6시까지 이어졌다.



표창장 수여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수상자들(사진 왼쪽부터-정창완 영등포구 지부장, 유수찬 이사장, 김성겸 은평구 지부장, 이경희 수석 부지회장)



동대문구지부가 우수지부로 선정되어 백만중 지회장(왼쪽)으로부터 지부기에 우수지부 리본을 달고 안성숙 지부장이 지부기를 흔들어 보이고 있다.



동작구지부가 우수지부로 선정되어 백만중(왼쪽) 지회장으로부터 지부기에 우수지부 리본을 달은 조사인 지부장이 지부기를 좌우로 흔들어보고 있다.

● 회비납부 안내사항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2026년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님들의 회비납부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시지회 및 지부 회비납부(회원님께서 소속한 지회, 지부에 납부)
지회, 지부 전용 계좌 : 농협은행 301-0156-2082-01
- 서울 구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본 협회소속 서울회원
: 연회비 10만원 본 협회에 납부 (**국민은행 031-25-0001-564**)
- 회비 문의 : 재무팀 02-2655-3135

- 회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 월간 한국사진 발송 중단(회원님들의 회비로 제작)
: 광역시지회, 지부 운영규정에 의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
: 회원 입회규정 제5조 1항에 의거 2년 이상의 회비 미납시 정권
- 정권 후 1년 이내에 회비 미납시 제적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적립 내역 (2025년 12월말 현재)

□ 27대까지 적립금(2017.2월말) : 798,001,466	▷ 2025년07월(33명) : 3,300,000
□ 28대까지 적립금(2020.2월말) : 218,172,424	▷ 2025년09월(40명) : 4,000,000
□ 29대까지 적립금(2023.2월말) : 93,715,796	▷ 2025년11월(41명) : 4,100,000
□ 30대적립금(2023.3월~9월말) : 129,125,862	
계 : 1,239,015,548(a)	
○입회자 발전기금 계 : 339,600,000 (3,355명/발전기금100,000/인)	○기타 계 : 101,414,082
① 2017년 계 : 36,600,000 ※특별회원2명 제외	▷ 이자(보통예금) : 68,628 (28대 누계)
② 2018년 계 : 53,200,000	81,623 (29대 누계)
③ 2019년 계 : 100,900,000	55,987 (30대 누계)
⑤2020년 계 : 15,700,000 ※특별회원3명 제외	▷ 이자(정기예금) : 24,403,796 (28대 누계)
⑥2021년 계 : 27,700,000	17,034,173 (29대 누계)
⑦2022년 계 : 32,200,000	47,769,875 (30대 누계)
⑧2023년 계 : 16,900,000	▷ 이자(임차보증금) : 4,000,000 (29대 누계)
⑨2024년 계 : 25,900,000	▷ 이자(임차보증금) : 8,000,000 (30대 누계)
⑩2025년 계 : 30,500,000	
▷ 2025년01월(108명) : 10,800,000	○운용 계 : 400,000,000 (b)
▷ 2025년03월(56명) : 5,600,000	▷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 400,000,000 (목동,한국예총 건물)
▷ 2025년05월(27명) : 2,700,000	
	□ 총 적립금 잔액 : 839,015,548 (a-b)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양해운(포항) 회원 별세 별세 2025년 12월 16일 발인 2025년 12월 18일 김민복(나주) 회원 별세 별세 2025년 12월 21일 발인 2025년 12월 23일
박종춘(동해) 회원 모친별세 별세 2025년 12월 22일 발인 2025년 12월 24일

석천 은효진 사진집 「그 길에 머문 시간」 출판



발행일 2025. 10. 31
저 자 은효진(010-3753-9295)
출판사 명작출판사
가 격 45,000원

나는 평소 모든 일에 호기심이 많고 도전정신이 강해 여행을 좋아한다. 어느 누구도 나를 기
다리고 반겨주는 사람 없는 낯설고 물설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면서 혼자만의 즐거움과 느낌
이 있었다. 그들의 삶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의 냄새를 느꼈기 때문이다. 1,300여 년 전, 해
초스님께서 황량한 실크로드의 고비사막을 따라 낙타 한 마리에 몸을 싣고 불교의 업적을 남
기기 위해 대장정의 길을 떠나신 것처럼 나는 카메라 하나 달랑 메고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
다녔다.
중국 북경에서 청장열차(4,800km)로 2박 3일 티벳 라싸까지 가서 티벳의 옛 수도 시가채
가는 280km 길은 해발고도 5,280m 산을 무산소로 넘어야 했었다. 실크로드의 황량한 고
비사막(6,400km)은 섭씨 52도가 넘는 불덩이 같은 영역의 땅을 3차례 횡단했으며, 영국출
신 소설가(제임스 힐튼 1933)가 잃어버린 지평선에 지상낙원이라고 묘사한 샹그릴라는 평
균 해발고도 3,500m이상 가야 저 멀리 만년설을 볼 수가 있었다. <작가노트 중에서>

http://dongilframe.alltheway.kr/
웹하드주소 www.webhard.co.kr
웹하드 ID: dongil6444 / PW: 6444
dongil6444@hanmail.net

동일액자

- 하드락액자(광학필름)
- 메탈액자(알루미늄판)
- 디아섹액자(아크릴)
- 사진출력 및 기본수정

"작품에 기술을 더한 액자와 사진출력"
대한민국사진대전, 각종 전시회 제작

· 대표문의 010-6462-6266 · 다음 검색창에 전주동일액자 를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사진전문잡지 최대발행 부수 - 대월1만부

1만명에게 보내는 초대장!!

대한민국사진작가협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2 대안문화예술인센터 2층 209호

67395

발행부수

30만원으로

전시초대도, 사진작품도 기게

2023. 12. 08. PM 15:00

I · N · V · I · T · E

702호 초대부인명사 1만명에게 보내는 초대장 400부

■ 게재 방법 안내

- 전시일정 사항, 작가노트, 전시작품 원본 15점 이내 - 전달 20일 이내 전달요임 (전시 한 달 또는 두 달 전 게재해 주시면 됩니다)
- 입금계좌 국민은행001-25-0001-5640 예금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전달 이메일 ssa0244@naver.com · 게재 된 월간 한국사진 20부 배부
- 게재 문의 02-2655-3131 (또는 편집장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시선의 온유

2026 장안대 사진예술아카데미 평생교육원 사진전



전시일시 2026년 2월 4일(수) ~ 2월 10일(화)

전시장소 갤러리아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52-1, TEL 02-736-6669)

전시기획 윤기섭(장안대 사진예술아카데미 평생교육원 지도교수)

참여작가 김용란(회장) 한정민(총무) 김두식 김봉애 김장겸 박찬애

배정옥 송진용 심영보 이영숙 장경숙 조미자 조재갑

이번 전시에 참여한 13인의 회원들은 사진을 배우는 시간을 기술을 익히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과 마주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점검하는 사유의 여정으로 삼아 왔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이전에 어떤 거리에서 대상을 바라볼 것인지, 기록한다는 행위가 지닌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고, 그 질문의 무게는 각자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고유한 결로 드러나고 있다. <작가노트 중에서>



빛과 그림자

아름다운 인재의 샘 – 가천대학교 디지털사진학회 동문 전시회

전시일시 2026년 2월 20일(금) ~ 2월 26일(목)

전시장소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전시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클러벌캠퍼스 비전타워 B-1)

전시오프닝 2026년 2월 20일 PM16:00

전시지도 김정식 교수(초대·추천작가위원회 위원장)

동문회장 심재안(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참여작가 심재안(동문회장) 문래출 문효숙 박은경

박정남 서우식 전영목 정금화 채금순



카메라는 작은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순간의 빛을 자신의 감정과 시선으로 기록해 왔습니다.
가천대학교 디지털사진학회에서 함께 시작했던 그날처럼,
이번 전시는 다시 한 번 '빛'으로 서로를 이어주는 자리입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AI와 사진, 특별한 사진 – 사진의 새로운 서사 Dream Photo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기획전

이번 기획전은 AI라는 새로운 도구 앞에서 인간 창작자의 역할을 재정의 한다. AI 기술은 사진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경험·기억·감정이 AI와 만나 새로운 형태의 내러티브로 전환되는 순간을 가능하게 한다. 작품 하나 하나는 이러한 변화의 지점에서, 사진이 여전히 유효한 예술적 사유의 매체임을 증명한다.



『AI와 사진, 특별한 사진』전시는 미래 사진예술의 방향을 질문하고, 그 답을 함께 모색하는 학습자들의 과정이자, 새로운 시각문화 시대를 향한 선언이다. 현실을 재구성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미지로 형식화하며, 인간의 감각과 기계의 사고가 만나는 이 특별한 실험이 앞으로의 사진예술에 새로운 지평을 열길 기대한다.

전시일시 2026년 1월 28일(수) ~ 2월 3일(화)

전시장소 57th갤러리 2F (단, 2월3일만 12시까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3길 17 안국역 1번 출구,
관람시간 10:00-19:00)

전시오프닝 2026년 1월 28일(수) 오후5시

전시기획 조주은 교수(010-8976-2797)

참여작가 이담영 백대흠 이은석 김도연 조철형 김호경

박해선 김덕정 구세우 광지원 이인수 장미애

한복례 오순안 김현주



빛이 남긴 기록 – 새로운 생명

정인호 개인전

전시일시 2026년 1월 28일(수) ~ 2월 3일(화)

전시장소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 1F 2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6, 홍익빌딩 TEL.02-730-5454)

전시작가 정인호(010-3621-6272)



어둠은 끝이 아니었다.
12월의 침묵을 지나, 바다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번 작업은 사라졌던 시간의 끝에서 피어오르는 '빛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다.
AI는 여전히 차가운 기술이지만, 그 안에서 나는 따뜻한 생명의 숨결을 느꼈다.
이제 '기억의 바다'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AI의 손끝에서 다시 피어난 그 바다는
인간의 감정을 품고, 기술의 언어로 호흡한다.
<작가노트 중에서>

바람의 땅, 빛의 기억 – 파타고니아 Land of wind, Memory of Light – Patagonia 오기종 개인전

파타고니아의 새벽은 차갑고 거칠며,
그 안에 순수한 침묵이 깃들어 있다.
끝없이 이어지는 험준한 능선 위로 첫 햇살이 닿아
스며드는 순간,
거대한 자연은 형언할 수 없는 한 폭의 기도로 변모한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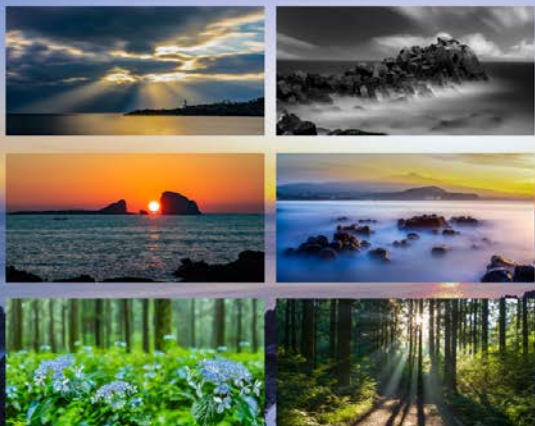
이 사진들은 단순한 풍경의 기록이 아닌,
파타고니아의 새벽,
내 영혼에 새겨 넣은 원초적인 올림과 경외감의 증거이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6년 1월 21일(수) ~ 1월 26일(월)
전시장소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신관1F (관람시간 10시~18시)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35-6 신관 1층)
개 전 식 2026년 1월 21일(수) 15시 30분
전시작가 오기종(010-8606-7899)

서비의섬제주

제주도 촬영지도 권기갑
연락처 : 01036965202



제주도 촬영 지도안내
제주도 풍경 및 장노출 지도 촬영시간 1일 8~10시간 기준
1명~3명 지도비 20만 원 삼각대 무료대여 (단체는 별도문의)
“개인전시를 위한 (포토스토리) 1년 작업 촬영지도 별도문의”

공모전용 무한잉크 포토프린터

11R=500



정품무한잉크

4x6
2,100장
출력가능
(정품인쇄시 1,800dpi)

Wifi

출력속도
27초
(A4기준)

용도	모델명	최대출력크기	정품무한잉크	협회 회원 특가	조건
공모전용	L1800	~ A3(13inch)	6색 75ml	495,000	용지 50% 할인 구매시 (공시가격기준)
개인용	L1800	~ A4(8.5inch)	6색 75ml	345,000	
A3 복합기	L1800	~ A3(13inch)	6색 600ml	609,000	-

신지 스튜디오클럽은요! (프린터 구매시 사진관 가격으로 잉크&용지&액자 구매 가능)

<p>포토프린터&정품잉크</p> <p>Canon EPSON</p> <p>사진관 전용 가격 제공 최대 30%할인</p>	<p>원목액자</p> <p>Natural, Brown 11R=6,600원</p>	<p>사진용지</p> <p>Canon EPSON SINJI</p> <p>사진관 전용 가격제공</p>	<p>출제·행사 장비대여</p> <p>촬영 + 출력 현장에서 바로</p>
---	--	--	--

제64회 한국사진문화상 및 우수회원상 추천 공고

사진예술 발전에 헌신한 작가 및 단체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사진문화상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64회 한국사진문화상 및 우수회원상 후보자 추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분 야

- ① 공로상 : 20년이상 사단에 헌신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업적이 있는 자로서 학술, 교육, 평론, 창작 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 ② 작품상 : 당해 연도 회원전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출품한 회원, 단 최근 5년간의 작품을 고려함.
- ③ 출판상 : 우리나라 사진문화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출판물(년행본, 작품집, 정기간행물, 기타)을 저작한 사람 또는 단체, 단, 출판물은 최근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함.
- ④ 특별공로상 : 사단에 헌신하여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 ⑤ 발전공로상 :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광역시·도 지회 및 지부 중 8개 이내의 단체
- ⑥ 회원표창 : 지회·지부에서 추천하여 한 해 동안 지회·지부 및 협회 발전을 위하여 공적이 지대한자 (지회·지부장, 임원 추천서 필수)

마 감 일

2026년 1월 18일(금) 협회 도착분에 한함
- 07955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목동, 예술연화원 1701호 한국사진작가협회)

진 행 절 차

- 접수된 추천서에 대하여 한국사진문화상 제8조에 의거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상자 선정
- 선정된 수상자는 2026 PASK AWARDS에서 시상 예정